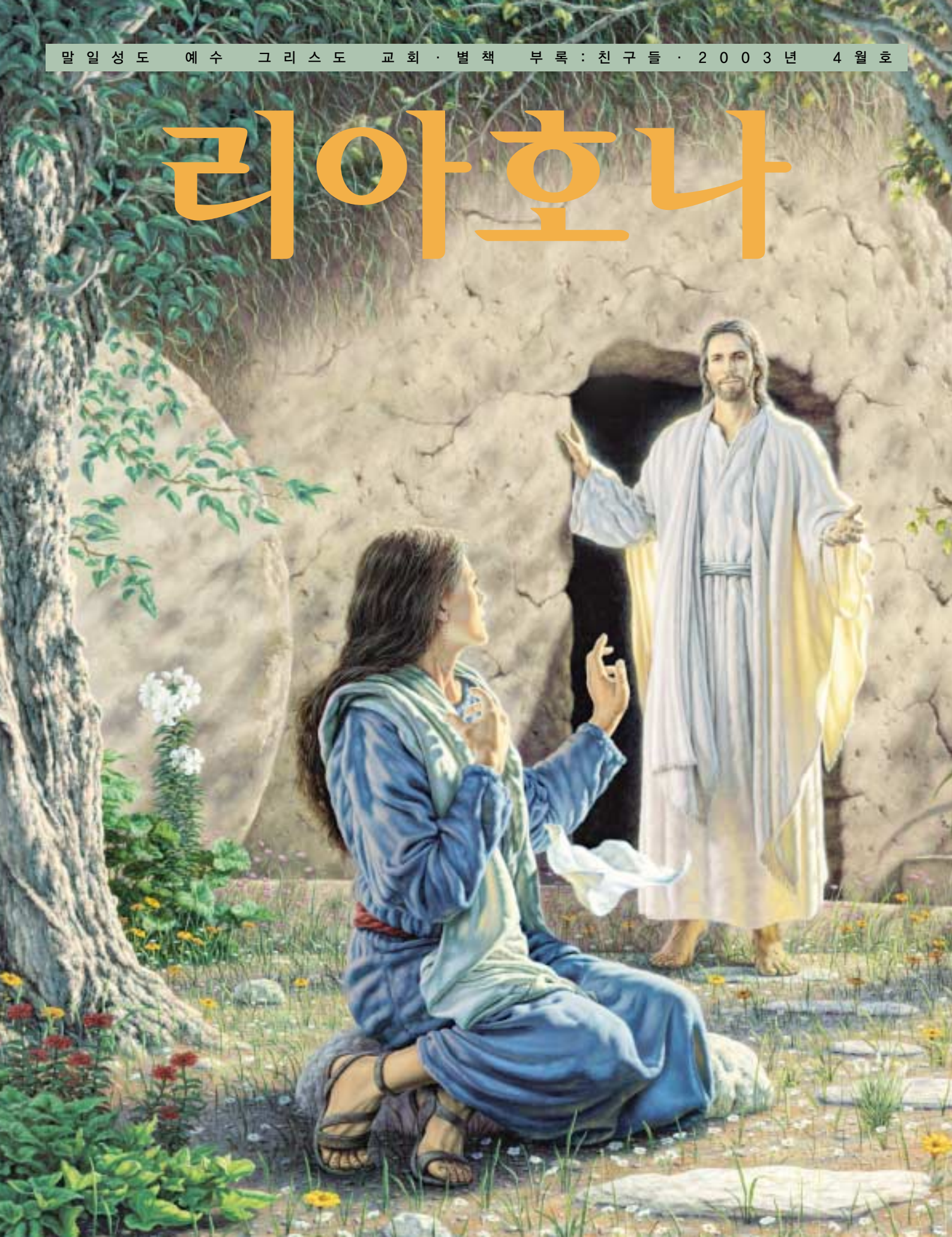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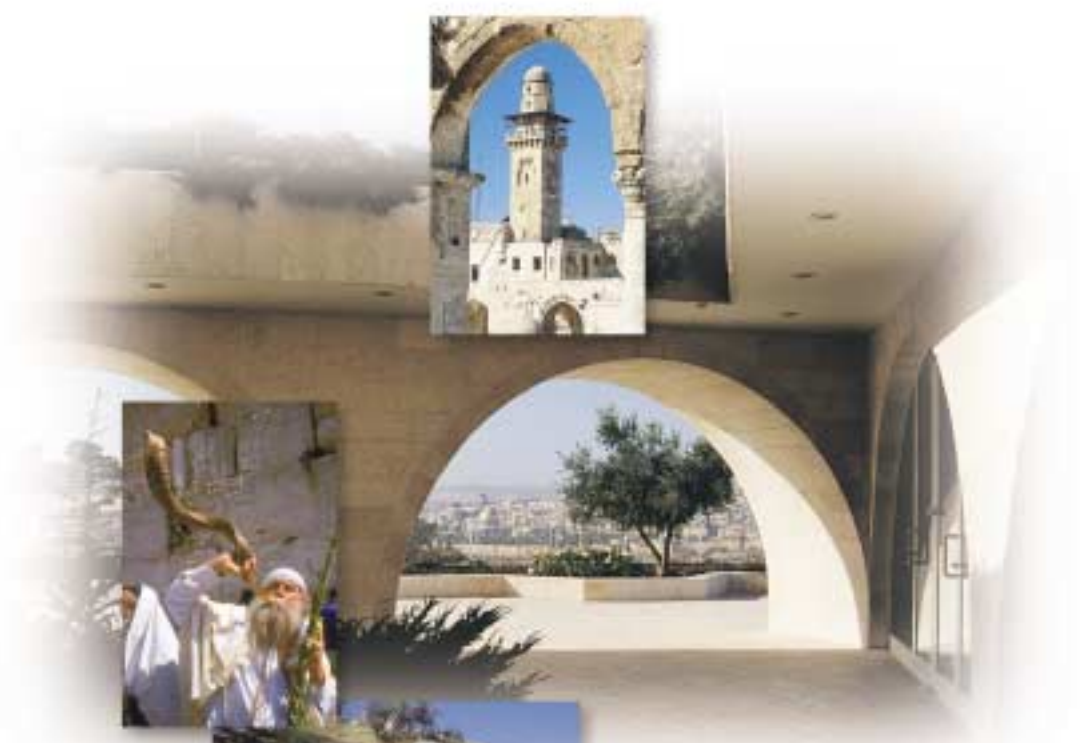


리아호나





위: 사원의 전통적인 특징인 첨탑. 왼쪽: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오른쪽: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본 도시 전경. 아래: 골고다 곧 해골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5~6)
 “예루살렘,” 8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앞 표지: 그림, 로저 러브리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뒤 표지: 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 라레노 포터 건트, © 2002 John Telford, and © ASAP LTD/Index Stock, 2쪽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및 8쪽 "예루살렘" 참조.



친구들 표지

그림, 사이먼 듀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소재 알더스 미술관 제공



2쪽 참조

일반

- 1 대관장단 서한
- 2 대관장단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예루살렘 디 켈리 옥든
- 18 예수님의 말씀: 죽음과 부활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예배를 준비함
- 26 신약전서 개관: 구세주께서 보내신 마지막 주
- 30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로셀 웰티와 쟈 핀보로우
- 40 말일성도의 소리
나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가? 마이클 렌커
금식과 기도로 루스 로드리게스 소델로
리네트의 간증 레이 플 라이트
고통을 통해 동생과 더 친밀했던 어머니 이담 시 울슨
- 48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22 만왕의 왕 리사 앤 잭슨
- 24 포스터: 그분은 가까이 계시다
- 33 아이디어 목록: 시간 관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 34 무도회를 통해 교회로 돌아옴 네드 비 루에시 장로
- 37 내 자신의 흉터를 치료해 주는 상처들 엘빈 멘시아
- 38 복음 고전: 덴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 44 질의 응답: 어떻게 영감과 내 자신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 47 알고 계십니까?

33쪽 참조

친구들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커 가는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 성전 카드
- 6 함께 나누는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비키 에프 마주모리
- 8 노래: 부활절 호산나 바나 와이 와트킨스
- 10 신약전서 이야기: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 16 특별한 증인: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런 장로





그림, 해리 앤더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마태복음 28:18~19)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제이 켄트 홀리, 더블류 롤프 커, 스티브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리차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클러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빈, 앨런 민슨, 셸리 제이 오데커트,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캄벌라 펄,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드,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브렌트 크리스티안슨, 새리 쿡, 캐리 린 시 해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45호, 제 40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종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니아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ril 2003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대관장단 서한

2002년 1월 20일자 다음 서한이 신권 지도자들에게 발송되었다.

“**신** 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가정 비축과 저축 예금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와드 평의회나 다섯 번째

일요일에 갖게 되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식량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연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식량을 비축하는 것에서부터 가정 비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거주지에 따라 이러한 기본 식량에는 식수, 밀이나 다른 곡류, 콩과의 식물, 소금, 꿀이나 설탕, 가루 우유, 그리고 식용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일년 동안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본 필수품을 충분히 비축했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매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른 품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러한 비축을 할 만한 돈이나 장소가 없는가 하면, 어떤 회원들은 법률상 일년분의 식량을 비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비축해야 합니다. 일년분의 식량을 마련할 자원이 없는 가족들은 우선 몇 개월분의 식량이라도 비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은 신중하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비축 노력을 극단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 예금뿐 아니라 1년분의 기본 식량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얼마 전에 한 방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체류하는 동안 구경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템플 스퀘어를 방문하고, 근교에 있는 협곡까지 드라이브하고, 빙엄 구리 광산을 견학하고 솔트레이크 호수에서 수영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해 받을까 봐 “공동 묘지에 가서 한두 시간 지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제안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 그곳의 공동 묘지를 꼭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동 묘지를 방문하는 시간은 인생의 의미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더 큰 사랑

나는 유타 주 산타 클라라라는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묘지에서 비바람에 시달려 온 묘비에 새겨진 스위스 이름이 주는 특별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온으로 오라”는 외침에 응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스위스에 집과 가족을 남겨 두고 지금 그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있는 이 마을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봄에는 홍수와, 여름에는 한발과 적은 수확과 고된 노동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들은 희생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큰 묘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 중에는 조국의 군복을 입고 전쟁이라는 격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안식처로서 성역화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진 꿈과 이루지 못한 소망과 비탄에 젖은 마음과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낮에 의해서 끊겨진 생애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희고 아담한 수많은 십자가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엄청난 수의 희생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프랑스의 베르딩이란 지방은 그곳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묘지입니다. 봄이 되어 농부들이 땅을 갈 때면 녹슨 철모와 총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땅을 얼룩지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스버그와 그 외의 남북 전쟁의 격전지를 여행하면 형제끼리 싸웠던 한 전쟁을 연상케 됩니다. 어떤 가족은 농장을 잃었고 어떤 가족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리디아 빅스비 여사에게 보냈던 유명한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빅스비 여사께,

“저는 육군성 기록에서 당신이 전쟁터에서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줍니다.

왼쪽: 그림, 로저 러브리스, 승려한 나의 구속주, 오른쪽: 오른쪽, 사진 촬영, 톰 부시

영광스럽게 전사한 다섯 아들의 어머니라는 매사추세츠 주 방위 사령관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다섯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을 위로하려는 저의 마음은 얼마나 쓸데없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인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쳐 구한 이 공화국이 드리는 감사로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별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인이 사랑했던 아들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자유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숭고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시도록 기원합니다.

“진실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에이브리햄 링컨”¹

하와이 호놀룰루의 펀치보울 모지나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태평양 기념 묘지를 거닐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사망한 사람이 모두 이 조용하고 푸른 지대에 묻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향해 도중 대양의 푸른 파도 밑으로 잠겼습니다.

진주만 공격 때 사망한 수천 명 가운데 아이오와 주 프레데릭스버그 출신의 윌리엄 볼이라는 수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1941년 같은 날에 사망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의 소년 시절 친구이자 이웃 워터루 마을에 사는 5명의 설리반 형제가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설리반 형제들은 친구의 원수를 갚겠다며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으므로 해군 당국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1942년 11월 14일 그 형제들이 근무했던 순양함 유 에스 에스 주니아호(USS Juneau)는 솔로몬 군도 구아달카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포격에 맞아 침몰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토마스 설리반씨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거의 두 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보통 전보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특사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섯 아들이 남태평양 전투에서 실종되었으며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만이 가장 적합한 비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²

“비통이 아니라 감사”

다른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의 끝별반에서 12세 소녀들을 맡았던 한 교사의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자녀를 갖기를 몹시 원했으나 갖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한 소녀들에게 영원한 진리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쳤던 그녀의 사랑은 그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 소녀들은 매년 현충일(미국 현충일 5월 30일)에 그 교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7명, 그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2명, 결국은 단 한 명만이 해마다 무덤을 찾아가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상징인 붓꽃 꽃다발을 놓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소녀는 훗날 소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 스승의 영상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 교사의 생애와 그녀가 가르친 교훈은 무덤 속에 묻히지 않았으며 그녀가 다듬어 주었던 사람들의 인격과 그토록 사심없이 풍요롭게 해 주었던 사람들의 삶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은 그분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³ 세월의 바람이 그분이 적으신 글자를 영원히 지워 버렸으나 그분이 살았던 생애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톤턴 와일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다가 잃은 자들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더 강력하게 인식하고 기억해 주기를 그들이 원하리라는 것뿐이다. ... 죽은 자에 대한 최대의 경의는 비통이 아니라 감사이다.”

켈러 가문의 아들들

여러 해 전에 솔트레이크시티 동부에 있는 아름다운 히버 계곡에 사는 자애로운 한 어머니와 헌신적인 아버지가 귀가해 보니 세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몹시 춥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 내리는 눈이 굴뚝을 막아 버렸으므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온 집 안에 팍 찼던 것입니다.

켈러 가문의 세 아들의 합동 장례식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놓았으며 어린이들은 학교를 쉬었고 모든 사람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나의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는 한, 그 세 개의 빛나는 관이 슬픔에 젖은 부모와 조부모가 따르는 가운데 건물 앞으로 지나가던 광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번째 연사는 지방 고등학교의 레슬링 코치였습니다. 그는 매행인 루이스에게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루이스가 그 팀에서 가장 뛰어난 레슬링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보다 더 노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교에서 부족한 점을 굳센 의지로써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후 한 청소년 지도자가 트래비스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트래비스가 어떻게 소년단 활동과 아론 신권 활동에서 뛰어났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미모에 유능해 보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이 셋 가운데 가장 어린 제이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조용하고 부끄럼을 잘 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소년의 서투른 글씨로 씌어졌지만 이때까지 받아 본 적이 없는 가장 귀엽고 다정한 편지를 제이슨으로부터 받았다고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전 선생님을 사랑해요.”라는 짧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감정에 북받쳐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특별한 날의 눈물과 슬픔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소년들이 준 영원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레슬링 코치는 운동에서의 소질보다는 각 소년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자는 모든 소년 소녀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제이슨의 친구인 어린 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어떤 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심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모든 어린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진리를 찾고 재능을 개발하고 놀라운 봉사의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은 모두 인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소년들의 삶과,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자신의 명철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부모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⁴

우 리는 이제 슬픔과 근심으로부

터 벗어난 소년들의 삶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의지하는 부모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영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면, 영광 육이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동산 무덤에 갔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에 압도되어 밤낮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요리와 세탁과 장보는 일까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떠돌고 소란을 피우며 성가시게 굴고 함께 뛰노는 것을 보지 못해 섭섭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해 섭섭합니다. 일요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사업도, 결혼도, 손자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부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쉽게 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에서 맡은 임무와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켈리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켈리 가족과 설리반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혼의 확신과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간증과 생활에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 삶의 새로운 장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 살았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고 생활하고 완전을 향한 영원한 여행에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나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만 머물고 떠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새로운 삶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수년 전에 나는 사경에서 헤매고 있는 두 자녀의 아버지인 젊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나는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의 탁자에 놓여 있는 물문경에 눈길을 갔습니다 내가 그 책을 들었을 때 나를 인도하기라도 하듯 얼마서 40장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이, 네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네가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셨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⁵

그 젊은 친구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말하고 있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면, 영광 육이 다시 결합되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⁶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⁷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⁸

이 약속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무덤에 갔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들의 경험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⁹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¹⁰

이것은 기독교계의 분명한 외침입니다.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줍니다.¹¹ 이것은 프랜시스 들판에 누워 있거나 바다 속에 수장되었거나 산타

클라라에서 쉬고 있거나, 평화로운 히버 계곡에서 잠들어 있는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그분의 가장 작은 종으로서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신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산 지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

주

- | | |
|--|----------------------------|
| 1. <i>에이버러햄 링컨의 서한, 연설, 국가 문서 선집에서 인용, 이다 엠 타벨 편, 보스턴: 진 앤드 컴파니(1911년) 109쪽.</i> | 5. <i>앨마서 40:1, 11~12.</i> |
| 2. <i>요한복음 15:13 참조.</i> | 6. <i>요한복음 11:25~26.</i> |
| 3. <i>요한복음 8:6 참조.</i> | 7. <i>요한복음 14:27.</i> |
| 4. <i>잠언 3: 5~6 참조.</i> | 8. <i>요한복음 14:2~3.</i> |
| | 9. <i>누가복음 24:1~5.</i> |
| | 10. <i>마태복음 28:6.</i> |
| | 11. <i>빌립보서 4:7 참조.</i>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함께 이 메시지의 처음 부분을 읽는다. 묘지나 장례식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하도록 권유한다. 부활과 마지막 두 단락에 있는 문슨 부대관장의 간증에 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눈다.

2. 죽음, 삶의 새로운 장이라는 표제 아래에 있는 첫번째 두 단락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묻는다. 그들에게 *앨마서 40장 1, 11~12절, 요한복음 11장 25~26절, 14장 2~3, 27절*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게 한다.

3. 각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적어 보게 한다. 그들의 질문을 토론하고 메시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생각을 나눈다.

ירושל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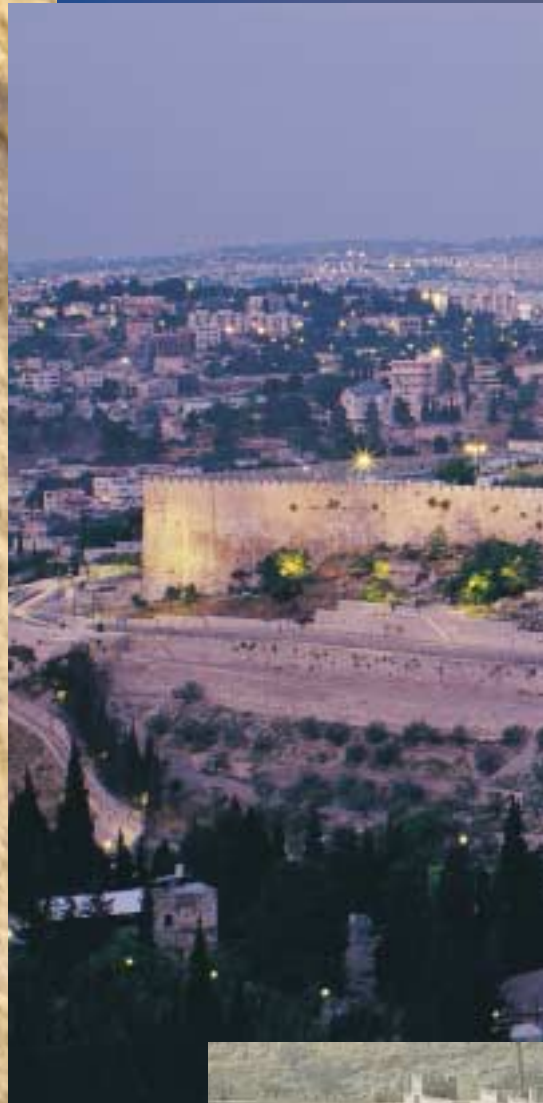
예루살렘

القدس

유대인, 그리스도교도 그리고 회교도들은
모두 각기 많은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거룩한
도시에서 예배를 드린다.

디 켈리 옥든

세상의 어떤 도시도 예루살렘만큼 이 세상 역사와 운명에 영향을 끼친
도시는 없다. 40여 세기 동안 셈족, 애굽인, 히위 족속,
앗수르인(아시리아인), 바벨로니아인, 바사인(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인, 회교도, 십자군, 터키인, 유럽인, 아랍인 및 이스라엘인 모두
예루살렘 역사에 등장한다. 멜기세덱,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사야, 리하이,
예레미야, 알렉산더 대제, 폼페이, 클레오파트라, 헤롯, 베드로, 바울, 디도,
콘스탄틴, 모하메드, 리처드 일세, 마이모니데스, 살라딘, 설리만 및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과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 회교도 묘지와 예루살렘 구시가 동쪽 벽에 저녁이
 깃든다. 바위의 황금 돔(중앙)과 돔으로 된 알 아크사 회교
 사원(맨 왼쪽)이 기독교인들은 성전 산이라 부르고
 회교도들은 하람 애쉬 샤리프(고귀한 성소)라고 부르는 곳
 꼭대기에 있다. 맨 왼쪽: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을
 묘사한 모형. 왼쪽: 고대 구도시 성벽 부분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동부 지중해 연안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국제 경제, 정치 및 종교 문제에 관한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그곳은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강력한 곳은 아니었다. 도시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주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데서 비롯되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상과 접촉하는 상징으로 서 있을 것이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은 구속주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과 공헌을 가져온 곳, 즉 속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있었던 곳이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다.



맨 왼쪽: 유대인들이 성전 산 서쪽 벽 근처에서 영적인 모임을 위해 모여 있다. 왼쪽 삽입: 유대인 가족이 성년식인 바 밧초바를 거행하고 있다. 왼쪽: 아브라함의 바위가 바위 틈에 얹혀 있다. 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바위 위에 올려놓았었다고 한다. 또한 구전에 의하면 회교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이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고 한다. 아래: 한 사람이 서쪽 벽 틈새에 그의 기록된 기도문을 놓고 기록한 유대인의 기록을 읽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에는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나 유독 예루살렘만이 세계의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및 회교의 중심지이다. 예루살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신자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종교들을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이 도시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다음과 같은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유대교: “세상에 주어진 열 개의 아름다움 가운데 아홉 개를 예루살렘이 취했다.”(탈무드, 키드쉬 49b)
 예루살렘의 장엄한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전혀 보지 못한





위 삽입: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다고 한다. 위: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 동산 무덤에 안치되었었다고 믿는다. 왼쪽 삽입: 다른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무덤 교회인 이 건물 안에 위치해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다고 믿는다. 왼쪽: 오래된 감람 나무들은 깻세마네 동산을 장식한다.

것이다.”(탈무드, 수카 51b)

기독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마태복음 5:35)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히브리서 12:22)이라고 가르쳤다.

회교: 알라의 모든 땅 중에서 그가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 ... 예루살렘에 내리는 이슬은 낙원의 정원에서 오는 것이므로 모든 병자의 치료제이다.”¹

이 3대 종교는 예루살렘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위치에다 인상 깊은 건물들을 지었다. 예루살렘 궁전, 회당, 교회, 사당, 수도원, 수녀원, 회교 사원,





위: 거룩한 산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 내부에 경배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다. 위: 회교도들은 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의식을 행한다.(유대인, 기독교인 및 회교를 모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의식을 행한다.) 왼쪽과 왼쪽 삽입: 바위의 돔은 회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 중 하나이다. 그것은 주후 691년에 헌납되었다.



예시바스(탈무드 학원), 그리고 다른 행정, 학문 및 예배의 중심지는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집합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파괴적인 분쟁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숭배의 도시로 남아 있다. 그곳은 또한 주님의 위대한 복천년 동안 그분과 그분의 성도들이 거하게 될 장소라는 평화로운 미래의 약속을 갖고 있다. ■

디 켈리 옥든은 유태 주 프로보 에지몬트 스테이크 에지몬트 제6와드 회원이다.

주

1. Walid Khalidi, *Before Their Diaspora: A Photographic History of the Palestinians, 1876~1984*(1984), 21쪽에서 인용



왼쪽: 감람산 너머로 해가 떠오른다. 메시아는 영광 중에 그 감람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위 왼쪽에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이 키 큰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오른쪽 중앙에 깃세마네 동산이 있다. 아래와 왼쪽 삽입: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맨 아래: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가 1841년에 성지를 헌납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의
말씀

죽음과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25)



그분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두 자매가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그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셨습니다.(요한복음 11:30~35 참조) 우리는 구세주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요한복음 11:23)고 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니이다”(요한복음 11:24)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녀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대답은 그녀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그러자 마르다는 그분에 대한 엄숙한 간증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만나이다”(요한복음 11:27)

마르다의 신앙은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그녀와 마리아를 위로했을 때 곧 성취되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여러 번, 구세주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 특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르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오는 슬픔을 잘 처리하기 위해 마르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르쳐지고 행해지고 있으며, 그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우리 모두 승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울고 슬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구세주의 제자들은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게 여기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한복음 16:17)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한복음 16:20)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께서는 슬픔과 기쁨이 대조되는 느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요한복음 16:21) 그분의 제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결국 죽음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데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확고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슬픔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사불멸과 영생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다가올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통을 더 잘 견디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한번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구세주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니고데모는 권고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한복음 3:14; 또한 모세서 7:55 참조)

구세주께서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들은 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마가복음 9:31)

주님은 성역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헬라인에 대해 말했을 때 그분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3~24)

물문경의 예언자 아빈아다이드도 비슷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있어 무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삼켜졌으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생명이라. 참으로 끝없는 빛이라 결코 어두워지지 아니하겠고 또한 생명도 끝이 없어 죽음이 다시 없으리이다.”(모사이야서 16:8~9)

우리의 부활과 승영

구세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보고, 열싸안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와 관하여 내가 시현으로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시현은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그들이 천천히 무덤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아들아, 어머니, 딸아, 형님, 누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릴 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옆에 누워 있다면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내 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과 서로 열싸안을 것입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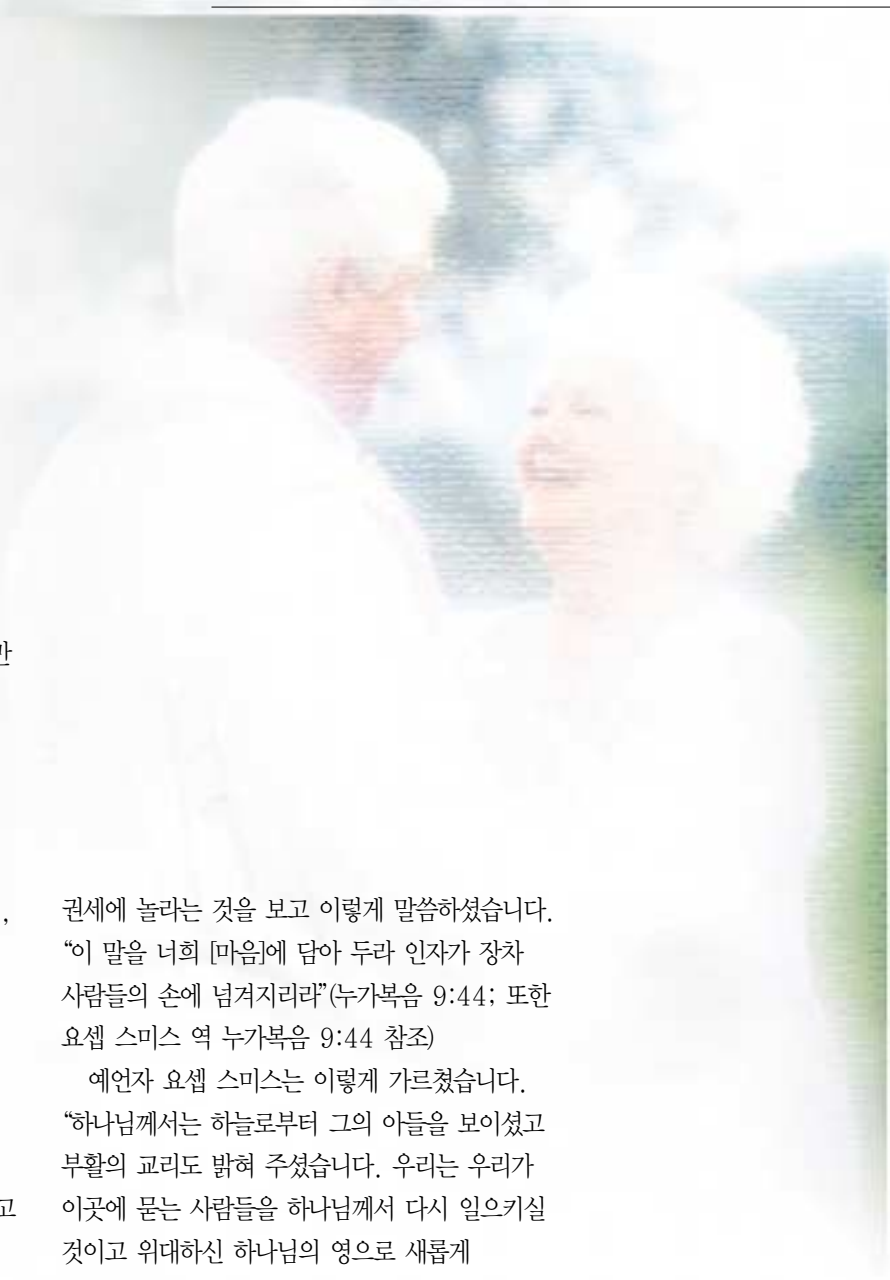
우리 구속주의 신성한 희생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활의 실재는 승영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세상에 간증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조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우리는 가족이 함께 결합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관을 쓰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9) 이 구절에 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불 속에서 거하게 되[며] ... 어떤 사람은 음행 때문에 정죄를 받도록 부활하는데 그 불과 유향 못에서처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²

회개는 “심판의 부활”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진지한 회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작용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18:11~12)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은 회개와 기쁨에 찬 부활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성벽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인류가 구속되며 만 인류를 다시 주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니,

“회개하는 자라야 주 앞에 거하는 것이라. 회개하는 자는 베어져 불에 던져지지 아니할 것이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베어져 불에 던져질 것이요. …”(힐라맨서 14:17~18)

우리가 부활과 승영에 관한 약속을 알게 될 때, 구세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소망은 더욱 깊고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김

구세주께서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그녀의 훌륭한 신앙을 잘 나타내 줍니다.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11:26~27)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과 불사불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나는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재결합할 것을 믿는가? 이러한 진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신앙과 강화된 간증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은 구세주께서 제자들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권세에 놀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누가복음 9:44; 또한 요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9:44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이셨고 부활의 교리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 이러한 진리를 마음 속에 새겨서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기를 바랍니다.”³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구세주의 가르침을 상고하는 일은 불사불멸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소망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맛보았을 기쁨을 바로 우리 마음에 채워 줄 것입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네 [사랑하는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요한복음 11:23)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

주

1. *History of the Church*, (교회 정사) 5:361~362.
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5쪽.
3. 가르침, 280쪽.

구 세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보고,
열째안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 왕 의 왕

리사 앤 잭슨

나는 왕과 왕비의 무덤가에서 있었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빈 무덤이다.

웨 스트민스터 사원은 템스 강 독에서 그리 멀지 않은 런던에 위치한 웅장한 석조 성당이다. 그것은 종교 및 문화의 중심으로서 900년 이상이나 자리를 지켜 왔다. 주후 1066년 이래로 두 명의 영국 군주를 제외하고 모두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혼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나는 이 유서 깊은 곳을 찾았다. 나는 예배당과 복도를 거닐었다.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천천히 걷다가 나는 몇 개의 지하 묘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아이작 뉴턴 경, 찰스 디킨스 등 잘 알려진 이름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유명한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영국 왕족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본 것들이었다.

나는 특히 왕과 왕비들의 무덤에 시선이 끌렸다. 그들은 대영 제국을 통치했으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적 권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갔다. “관 뚜껑을 젓히고 보면 육신의 흔적만 남아 있으리라”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하게 여겼다. “이 왕과 왕비들은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후에 나는 만왕의 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 돌을 굴렸을 때 그 안에는 아무런 육신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분은 불사 불멸의 존재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가 오늘날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니요, 찰스 디킨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건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총만한 복음은 없었지만 구세주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지어졌다. 나는 그분에 대한 내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은 심오하고 영원한 방법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 ■

리사 앤 잭슨은 교회 잡지 담당 직원이다.

배경: 랜달 제이 피크스톤, 컴퓨터 그래픽 합성;
삽화: 델 피슨,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가까이 계 십 니 다

구세주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마가복음 5:25~34 참조)

그림: 하이디 달리,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109:13, 15: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주의 집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며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신학사상 가장 심오한 표현이 됩니다. 저는 ... 세상 모든 곳의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고귀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된 영과 축복을 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성전 의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의식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의식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앙, 회개, 침례, 확인,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기에 합당한 성숙함과 고결성 등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거룩한 성전”,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17쪽)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약입니다. 우리는 성약이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는 성약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맺는 성약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우리가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강조해야 할 두 번째 개념은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인류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무한한 속죄가 없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에 대한 희망도 없이 잃어버려질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속죄의 구속하는 능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Prepare for Blessings of the Temple(성전 축복을 준비함)”, *Ensign*, 2002년 3월호, 21~22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성전은 평화의 집, 계시의 집, 기도의 집이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로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는 영과 은사를 얻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사려 깊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준비해야 하며, 세상 근심 걱정을 밖에 벗어놓아야 합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사려 깊게 경청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성전 예배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

그림: 존 펠터, 요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사도들을 가르침



신약전서 개관

구세주께서 보내신 마지막 주

주후 34년 봄 유월절 6일 전 유월절 5일 전

| | | |
|-----|-----|----------|
| 사건 | 4 5 | 6 7 8 10 |
| 여행 | 1 3 | |
| 설교 | | 9 |
| 기적 | 2 | |
| 비유 | | |
| 물몬경 | 80 | |

날짜는 대략임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하루는 일몰부터 시작됨.

- 요한복음 11:7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심.
- 요한복음 11:1~53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 요한복음 11:54 예수께서 에브라임 동네로 가심.
- 요한복음 12:1~8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음.
- 요한복음 12:9~11 대제사장들이 음모하여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함.
-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1:1~6 지시에 따라, 두 제자가 예수께 당나귀를 끌고옴
-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1:7~11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심. 무리가 그분을 왕으로 맞이함.
- 누가복음 19:41~44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심.
- 요한복음 12:20~50 성전에서 예수께서 어떤 헬라계 유대인에게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심.
- 마태복음 21:12~16 예수께서 두 번째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
- 마태복음 21:17 예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심.
- 마태복음 21:12~22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 마태복음 21:23~46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함. 그들을 꾸짖으심.
- 마태복음 21:28~22:14 두 아들, 사악한 농부, 왕의 아들의 결혼에 관한 비유.
- 마태복음 22:15~46 적들이 예수님을 말의 뒷에 걸리게 하려 함. 그분은 로마의 세금, 결혼과 부활 및 큰 계명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심.
- 마가복음 12:41~44 예수께서 성전에서 한 미망인이 한 렘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심.
- 마태복음 23:1~36 예수께서 무리에게 위선에 대해 경고하심.
- 마태복음 23:37~39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위해 탄식하심.
- 마태복음 24~25; 요셉 스미스 1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의 재림에 관한 표적을 가르치심.
- 마태복음 25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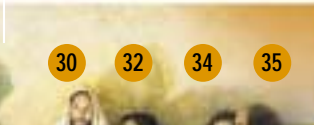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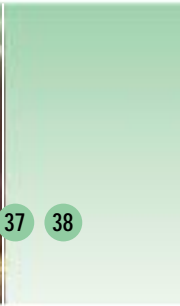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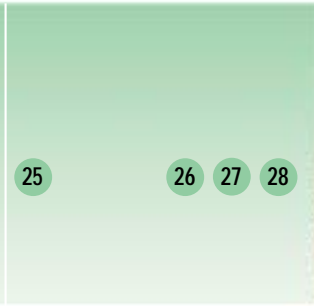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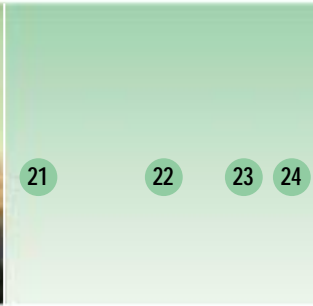
유월절 4일 전

3일 전 유월절 2일 전

오후 6시* 무교병 첫날

오후 9시

자정



- 21. **마태복음 26:1~2**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를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
- 22. **마태복음 26:3~5**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시 음모를 꾸밈.
- 23. **마태복음 26:6~13**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심. 한 여인이 그분의 죽음을 위해 예수께 기름을 부음.
- 24. **누가복음 22:3~6**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기로 함.
- 25. **누가복음 22:7~13** 제자들이 다락방에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함.
- 26. **누가복음 22:14~38** 해가 진 후에 예수께서 십이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심.
- 27. **요한복음 13:18~30** 예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심. 유다가 방을 나감.
- 28. **마가복음 14:22~25**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
- 29. **요한복음 13:2~17** 예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심.
- 30. **요한복음 13:31~35**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심.

- 31. **마가복음 14:27~31**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함.
- 32. **요한복음 14**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 간증하고 보혜사에 대해 가르치심.
- 33. **누가복음 22:39**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을 떠남.
- 34. **요한복음 15~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 사랑, 반대, 임박한 죽음 등에 대해 가르치심.
- 35. **요한복음 17** 예수께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께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 그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 36. **요한복음 18:1**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함.
- 37.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40~46**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심. 예수께서 기도를 드리실 때 천사가 그분을 도움. 예수께서 세 사도가 자는 것을 보심.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리심. 예수께서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심. 세 사도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음. 그분이 세 번째 기도하심. 예수께서 제자들을 깨우심.
- 38. **마가복음 22:47~48; 요한복음 18:2~9** 가롯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반함. 그분의 적들이 땅에 넘어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림, 해리 앤더슨,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승리 임종의 일부; 그림, 그레그 울슨, 오 예루살렘!; 플로리다 주 베니스, 미 폰드 출판사 신영의 장민 수필품 기문대사; 그림, 제임스 웨이 터스,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반함; 그림, 윌터 레인, 나를 기뻐하여;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양; 그림: 사이먼 뉴이, 최후의 만찬, 유다 주 아메리칸 포크, 알투스 페인 아트 제양; 그림: 윌터 레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양

자정
사건

오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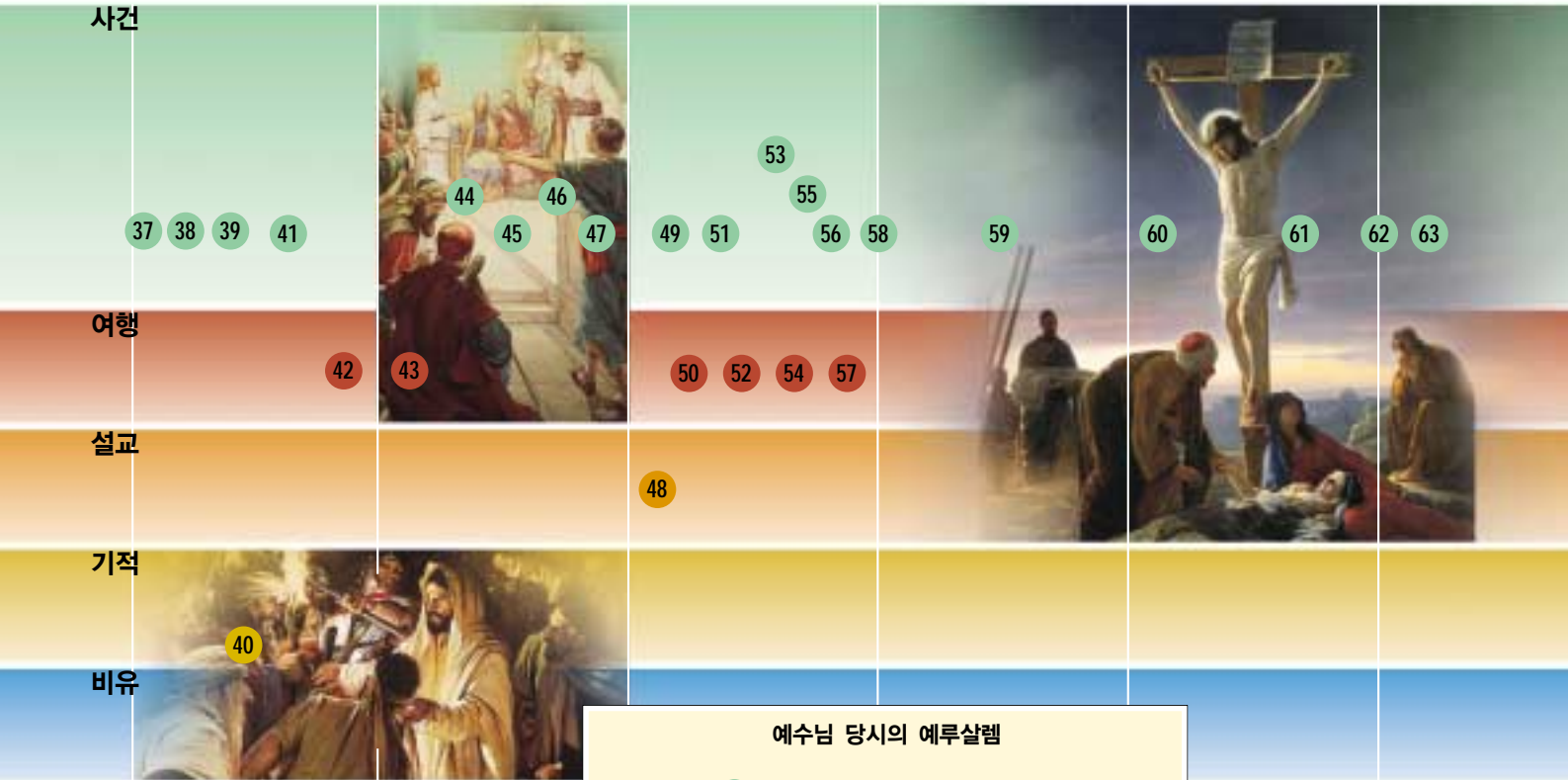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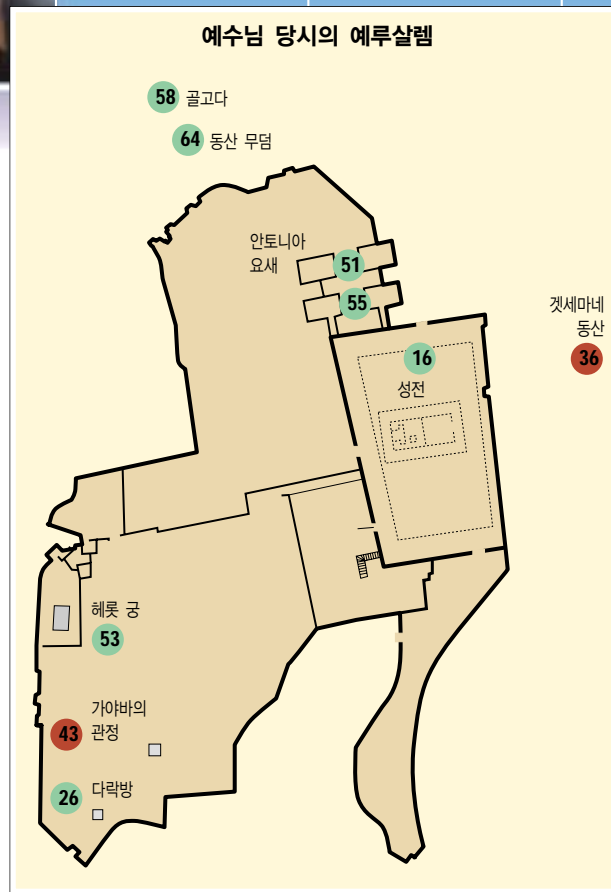
설교

기적

비유

물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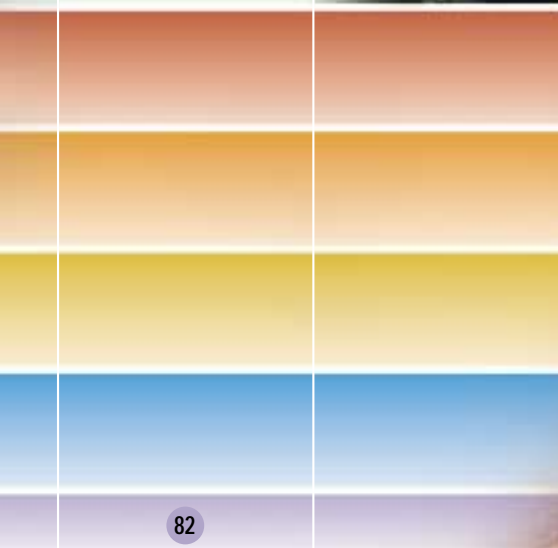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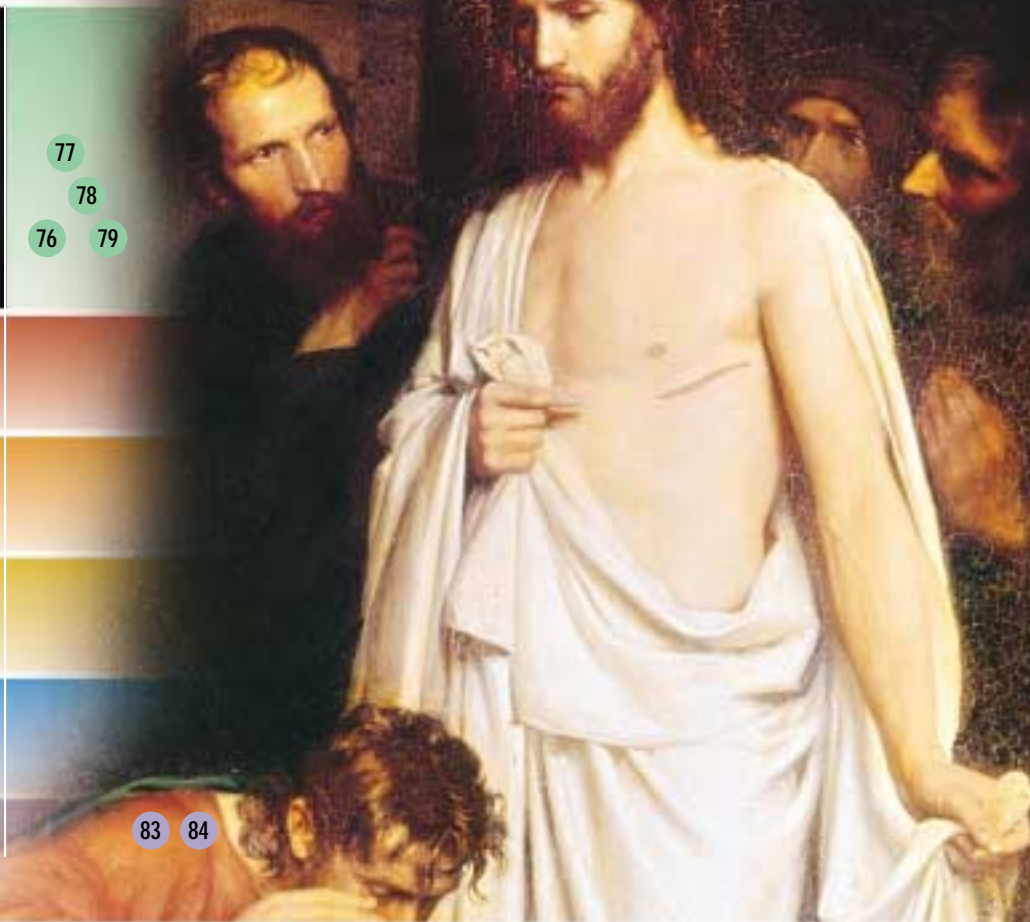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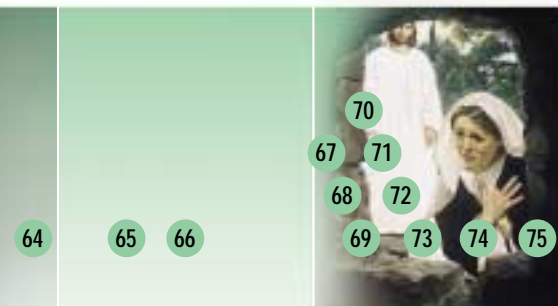
- 39. 요한복음 18:10~11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하려 함.
- 40. 누가복음 22:49~51 예수께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 주심.
- 41. 마가복음 14:46, 48~52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도망침.
- 42. 요한복음 18:13 예수께서 먼저 안나스의 궁으로 끌려가심.
- 43. 요한복음 18:24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보내짐.
- 44. 요한복음 18:14~23 가야바가 예수께 질문함.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때림.
- 45. 마태복음 26:59~68 공회회 회원들이 예수께 질문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림.
- 46. 누가복음 22:56~62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함.
- 47. 누가복음 22:66~67 날이 새자 예수께서 온 공회로부터 질문을 받으심.
- 48. 마태복음 27:1; 누가복음 22:67~71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 그분이 사형 언도를 받음.
- 49. 마태복음 27:3~10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
- 50. 요한복음 18:28 예수께서 로마의 관정으로 끌려가심.



- 51. 요한복음 18:29~38 빌라도가 예수께 심문을 하였으나 잘못을 찾지 못함.
- 52. 누가복음 23:6~7 빌라도가 예수를 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냄.

- 59. 마가복음 15:29~3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조롱 당하심.

- 53. 누가복음 23:8~12 헤롯이 예수를 심문하고 조롱함.
- 54. 누가복음 23:11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냄.
- 55. 누가복음 23:13~25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라고 말함.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줌.
- 56. 요한복음 19:1~16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때림. 빌라도가 다시 그분을 놓아주려 했으나 백성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원했음.
- 57. 마가복음 15:20~22 예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심.
- 58. 마가복음 15:23~28; 요한복음 19:23~2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음.



- 60. 마가복을 15:33 어둠이 세 시간 동안 온 땅을 덮음.
- 61. 요한복을 19:29 예수께 식초를 마시라고 줌.
- 62. 마가복을 15:37~38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심. 지진이 있었으며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짐.
- 63. 요한복을 19:31~37 한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
- 64. 요한복을 19:38~42 해가 지기 전에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함.
- 65. 마태복을 27:62~66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함.
- 66. 교리와 성약 138:11~24 예수께서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영의 세계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방문하셨음.
- 67.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을 28:2~4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천사들이 무덤을 열었음.
- 68. 마태복을 27:52~53 영의 세계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했음.
- 69.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을 28:1~8; 요셉 스미스 역, 마가복을 16:1~8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 몇몇 여인들이 무덤이 열려 있는 것과 천사들을 보고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말함.

- 70. 요한복을 20:2~10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됨.
- 71. 요한복을 20:11~17 예수께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 72. 누가복을 24:34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 73. 마태복을 28:9~10; 누가복을 24:10~11 예수께서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심. 그들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함.
- 74. 누가복을 24:13~35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 75. 누가복을 24:36~48; 요한복을 20:19~25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
- 76. 요한복을 20:26~29 8일 후에 예수께서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심.
- 77. 요한복을 21:1~23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분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음.
- 78. 마태복을 28:16~20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 79. 누가복을 24:49~53; 사도행전 1:1~11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심. 두 명의 천사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함.



물문경

- 80. 니파이삼서 8:2~3 미대륙에 있던 의로운 자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적을 바라보기 시작함.
- 81. 니파이삼서 8:5~19 거대한 폭풍과 지진이 미대륙 전역을 파괴함.
- 82. 니파이삼서 8:20~10:9 어둠이 3일 동안 땅을 덮음. 예수께서 하늘에서 미대륙에 있는 더 의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심.
- 83. 니파이삼서 11:1~26:15 예수께서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가르치심.
- 84. 니파이삼서 16:1~3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다른 양들을 방문하심.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림: 프랑크 이담스, 주님께서 기아바 외에서 고스 당함; 그림: 칼 헤인리히 볼프호프, 십자가에 못박히심, 덴마크; 윌리엄드 쇼제 프래드릭스부르그 푸린 역사 박물관 제공; 그림: 리스 페른 스펠름, 아찌히어 우노노?; 그림: 칼 헤인리히 볼프호프, 십자가에 못박히심; 그림: 웨버 레인, 이제 허락하면 의심 많은 도마의 일부; 그림: 케리 헬 립, 그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느니라; 지도: 토마스 에스 차일드; 그림: 웨버 레인, 이제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로셀 웰티와 켄 핀보로우

조금씩, 조금씩 주님은 인도에 있는 청년인
안나푸르나 구루 무랄라가 그녀의 꿈과,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도록 도우셨다.

소녀가 기록하는 일지는 대체로 자신의 꿈에 대한 기록이듯이, 안나푸르나 구루의 일지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 “언젠가 나는 성전에 갈거야.”

이 글을 썼을 때 안나푸르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성장한 그녀는 어렸을 때 가톨릭 학교에서 기독교에 관해 조금 배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녀의 오빠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나 침례를 받았다. 오빠가 그녀에게 물문경을 주었을 때 그녀는 열네 살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기억했다. “그것을 읽고 나서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나푸르나는 자신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 특히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을 복음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자신이 교회에서 침례 받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십대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안나푸르나는 조용히 새로운 신앙에 따라 생활했다. 그녀는 물문경과 성경을 읽었다. 기도를 드렸으며,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웠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

말일성도와 결혼할 것이다. 언젠가 성전에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에게 그녀가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귀한 선물, 즉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라는 선물을 주리라고 생각했다.

기적에 기적을

안나푸르나가 스무 살에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녀의 부모는 사랑하는 딸을 위한 전통 결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나푸르나는 결코 꿈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큰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가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그 신성한 계획들은 기적에 기적을 더해 가며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첫째, 그녀는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가족을 방문 중인 충실한 말일성도 산토쉬



위: 안나푸르나, 닐, 산토쉬.
둘째 아들, 키스 아몬은
2002년 7월에 출생했다.
안나푸르나는 그녀의 아들들과
그들 세대의 다른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성전에
가고, 인도에서 교회 지도자가
될 날을 꿈꾸고 있다.

무랄라를 만나게 되었다. 의학도인 산토쉬는 기차로 이틀 거리인 찬디가르에서 외과 전문의 과정을 실습하고 있었다. 안나푸르나와 산토쉬는 만나서 반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산토쉬는 인도 방갈로르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의 친구 닐 트윗철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아주 훌륭한 여성”이라고 했다. 산토쉬는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여성이라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안나푸르나도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말일성도 청년인 산토쉬가 그녀가 찾으려고 기도해 온 남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몇 통의 편지를 주고 받은 뒤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했다. 몇 달 후 그들은 결혼했다. 우리는 안나푸르나의 가족이 처음에 왜 당황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나푸르나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법적으로 성장해 있었다.

안나푸르나는 이 상황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면 나의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생에서 부모님은 나를 언짢게 생각하겠지만 영원한 견지에서 그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사실, 안나푸르나의 부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결혼을 시인하고 있다. 그들은 산토쉬를 좋아하며, 심지어는 산토쉬의 부모와 사교적으로 친분을 갖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안나푸르나의 또 다른 꿈은 그녀가 침례를 받았을 때 드디어 이루어졌다. 찬디가르에는 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랄라의 가족은 그녀의

침례를 위해 뉴델리까지 다섯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나푸르나가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부조차 멀리 떨어져 있었다. “침례를 받기 전에는 교회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길 모퉁이에 있었지만 갈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다섯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안나푸르나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섯 시간의 여행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말일성도 가족 둘이 이사를 온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라고 산토쉬는 설명한다. 영국인 부부인 비어 형제와 자매는 비어 형제가 고속도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찬디가르로 온 것이었다. 비어 자매는 무랄라 가족에게 종교 교육원 공과를 가르쳤으며, 비어 가족은 매주 무랄라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졌다. 한국인 가족인 문 형제 가족이 또한 찬디가르에 왔다. 문 형제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2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이 작은 말일성도 가족들은 문 형제 집에 모여 성찬식을 가졌다. 산토쉬가

안나푸르나의 소중한 꿈은 결국 그녀가 2001년 중국 홍콩 성전에서 산토쉬와 날에게 인봉되었을 때 성취되었다.



찬디가르에서 전문의 실습을 마치고 난 직후, 비어 가족과 문 형제 가족도 멀리 이사를 갔다.

산토쉬가 심장의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뉴델리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다. 이제 교회의 운영에 관한 안나푸르나의 이해는 복음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성장해 갔다. 그녀는 찬송가를 부르고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다.

다음 세대를 위한 꿈

2001년 6월 19일, 안나푸르나의 스물네 번째 생일에, 그녀가 소녀 시절부터 꿈꾸어 온 성전 결혼이 실현되었다. 무랄라 가족은 중국 홍콩 성전으로 아직 두 살이 안 된 첫 아기 날을 데리고 여행을 했다. 그들은 5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장 거룩하고 감동적인 순간은 서로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인봉될 때였다.

현재 무랄라 가족의 생활은 너무나 바빠서 모든 일을 다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안나푸르나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산토쉬는 뉴델리 제1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산토쉬는 또한 병원에서 18시간 내지 36시간 교대로 1주에 100시간을 보낸다. 일요일에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 그는 다른 휴일에 일을 한다. 안나푸르나는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남편을 돕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다. 그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인도에서 초등학교, 세미나리, 청남 및 청녀 과정을 거친 1세대의 자녀로서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그녀는 또한 그들도

성전에 가게 될 날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도 성전이 건립될 날까지 꿈꾸고 있다. ■

로셀리 웰터와 그녀의 남편 로이는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켄 핀보로우는 솔트레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스테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제4와드 회원이다.

무도회를 통해



교회로 돌아옴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누군가가 저를 스테이크 청소년 무도회에 초대했습니다. 춤을 추며 내딛는 스텝 하나하나가 다시 교회에서 활동과 봉사를 하게 하리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네드 비 루에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가 십대 후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제 삶을, 제 영원한 삶을 바꿔 놓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저희 와드의 한 자매님이 전화를 하여 몇 주 후에 있을 상호 향상회 활동의 밤 행사의 일부로 댄스 공연을 해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춤추는 것은 저의 취미였고, 당시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볼룸 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무도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약속된 날 밤 제가 파트너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만 초대된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으며, 너무나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아침 저는 집사로 성임된 이후 처음으로 와드 모임에 참석해야겠다고



와드에서 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제 가족은 모두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제게 진실한 우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시작으로 저는 평생토록 제게 기쁨을 주었던 교회에서의 활동과 봉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옴

몇 명의 형제들이 저를 돌보아 주었으며,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훌륭한 귀환 선교사가 제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으며,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와드에서 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과 행복으로 가득한 15개월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그 언어와 나라 그리고 그 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주

위를 돌아보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권유합니다.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는 저의 여생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권유

저는 친구를 갖고, 책임을 맡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세주의 사랑을 앎으로써 느끼는 감미로운 느낌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동면 상태에 있지만 “선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 영혼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모범을 살펴보고는 어떻게 하면 자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권유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들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하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세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13)

저는 모든 이에게 나아와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주는 이 위대한 축복들을 누리시도록 초대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로나이가 “바른 길”이라고 부른 곳으로 주의 깊게 나아가며(모로나이서 6:4)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려 그분을 따르도록 합시다.

마음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높은 곳에서 임하는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큰 열정을 갖고 나아가며, 사람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이끌어 그분의 선하신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여 그분의 애정어린 사랑을 알게 합시다.

재능을 나누도록 초대받았던 오래 전 그 날 밤, 교회 안에서의 새 친구들과의 활동이라는 놀라운 세계로의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저를 양육하며 제 삶을 축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우리가 그분의 감미로운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일 때 느끼는 기쁨에 견줄 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 고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

1999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내 자신의 흉터를 치료해 주는 상처들



엘빈 멘시아

나에게는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상처가 있다. 죄와 태만은 내게 또다른 상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남겼다.

십대였을 때 나는 친구와 종종 흉터를 비교해 보곤 했다. 무척 활동적인 청소년이었던 우리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그런 상처 때문에 흉터가 남아 있다. 우리에게 특별한 흉터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은 크기와 모양, 그리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똑같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흉터는 왼쪽 무릎에 있었으며 모두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것이었다.

7월 어느 선선한 저녁에 이 친구는 언니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한다는 다른 두 젊은 청년과 함께 온두라스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 선교사들은 우리

가족과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우리는 4주 후에 침례를 받았다.

복음을 알고 난 후 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상처들은 우리 육신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부주의나 안전한 표준을 어긴 결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로 생긴 것들이다. 그 상처들은 연고나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 회개와 그를 믿는 신앙만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의원이다.

내 흉터를 볼 때 나는 다른 상처,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기억한다. 그분의 상처는 나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상처들이다. ■

엘빈 멘시아는 나카라과 마나과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1873~1970)

나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
청녀에게,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적인
힘, 육체적인 힘, 영적인
힘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움지 못한
욕망과 감정에 빠지고
싫어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대회
보고, 1945년 4월, 123쪽.

덴

그 말은 매우 영리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영리했습니다.

나는 혈통 좋은 어린 수컷말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훌륭한 기질,
깨끗하고 잘 발달된 눈과 근육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동물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타면 그 말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기꺼워 하고 순종적이었으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 말과 나의 개 스카티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 개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에 접근할 때 취하는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또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할 경우 그 말이 부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 덴디는 묶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묶여 있는 것을
싫어했으며, 묶여 있는 동안 다시 풀려날 때까지
로프를 씹어 대곤 했습니다. 그는 풀려 있어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풀려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다른 말들의 로프를 풀어 주곤
했습니다. 그 말은 풀밭에 갇혀 있는 것도
싫어했으며 울타리 안에 철망이 쳐져 있는 장소를
보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발로 밀어내어 자유롭게
그곳에 갈 수 있게 합니다. 이웃들이 몇 번 그
말을 다시 풀밭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문을 밀어서 여는 방법까지 알아냈습니다.
종종 문을 망가뜨려 화가 나고 때로 많은 경비를

지불케 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예지와 현명함을 좋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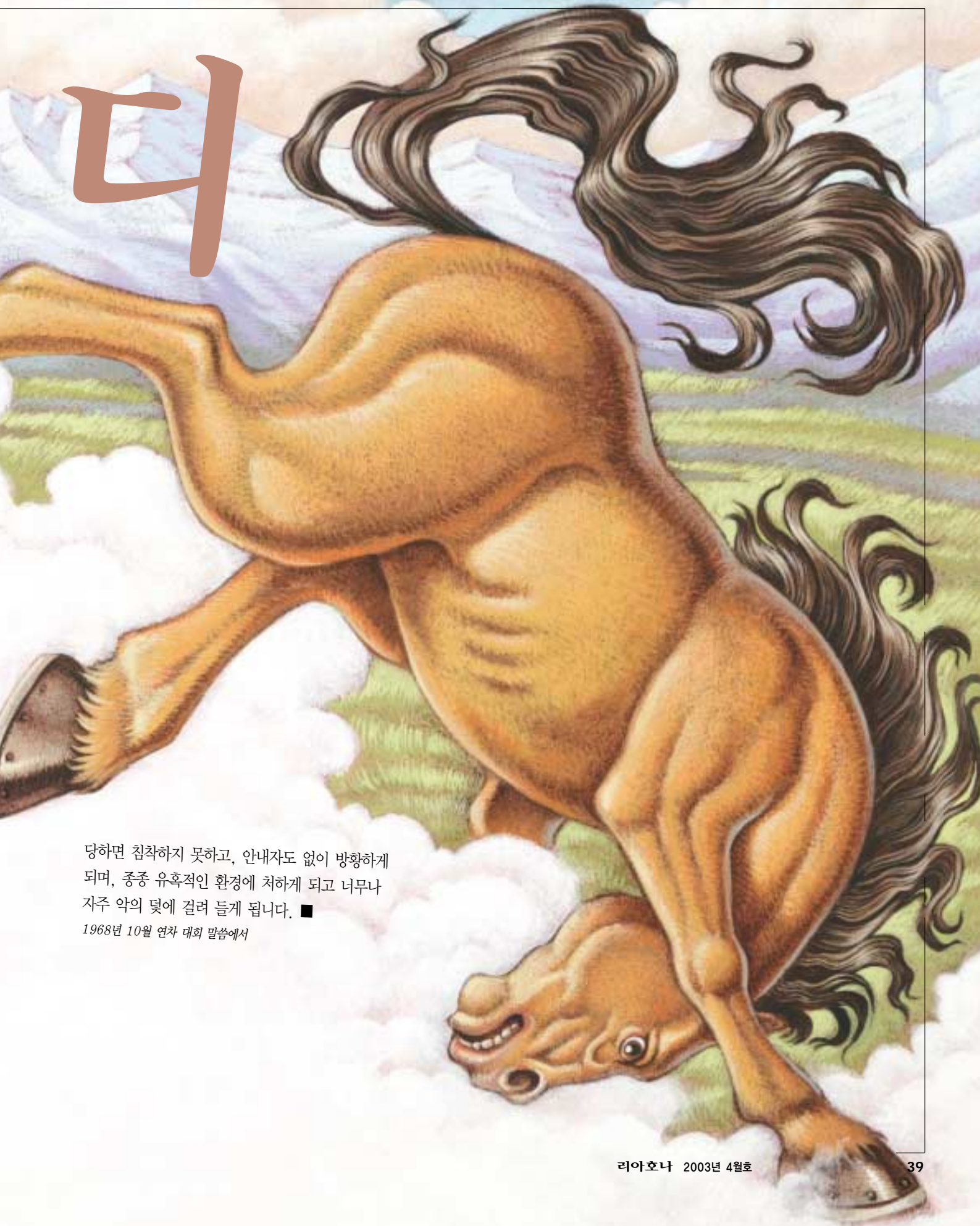
그러나 그 말이 갖고 있는 호기심과 이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소망은 나와 그 말을
근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한번은 그 말이 고속
도로에서 차에 부딪혔는데 그 때문에 차가
망가졌고 말도 상처를 입었으며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고로부터 회복된 후에도 여전히 방랑벽을
갖고 있던 그 말은 풀밭에 세워져 있는 울타리
전역을 샅샅이 샅했습니다. 그 말은 문에도 철망이 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분간 덴디가 풀밭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문에 있는 철망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덴디는 문을 연 후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이웃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말들은 창고로 쓰이는 낡은
집으로 갔고, 호기심에 가득 찬 덴디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곡식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설치류를
잡기 위해 독을 묻혀 놓은 미끼였습니다. 잠시 후
덴디와 다른 말은 발작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둘
다 곧 죽고 말았습니다.

덴디는 정말 많은 청소년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가득하며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제지를

디



당하면 침착하지 못하고, 안내자도 없이 방황하게
되며, 종종 유혹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고 너무나
자주 악의 뜻에 걸려 들게 됩니다. ■

196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가?

마이클 렌커

나는 종종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곤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나는 이제 겨우 스물두 살인데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약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아마 디스코장에서 춤을 춘 것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거야. 다리들도 파업을 하는 모양이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나중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내게 근육에 병이 생긴 것 같으면서 즉시 나를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보냈다. 그 이후 나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니면서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번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힘이 없었다.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피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외로웠으며 삶의 목적을 찾고

나의 새로운 친구는 내게 물몬경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 무렵 나는 독일 코블렌츠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내 나이 정도 되는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녀는 심한 병을 앓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홀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교회에 가는 사람처럼 일요일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냐고 묻자 그녀는 “교회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종교에 관해 오랫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신교도 가정에서 성장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의미 없는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세상에 조직적인 지도력을 갖춘 종교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교회요?” 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 다음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창백해졌다. “무슨 교회? 이상한 종교 아니냐?”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렸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다. 당시 그것은 내게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었다.

나의 새로운 친구는 내게 물문경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코블렌츠에 있는 선교사들이 내게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병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의 친구는

종종 나를 찾아왔다. 나는 물문경을 갖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읽었다.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난생 처음으로 참된 친구를 찾았다.

병원에서 외출을 할 때면 나는 솔링겐에 있는 그 친구와 그녀의 가족을 방문했다. 그들은 내가 만나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일요일에 나는 그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다. 병원에 돌아와서도 나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물문경에 참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다.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이 교회에 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고, 풀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솔링겐에 있는 나의 새로운 친구들로부터 방문을 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으며, 나는 전보다도 더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나는 복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냈으며, 그들은 풀다에서 나머지 토론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결국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으며, 침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찾도록 도와주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내 다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교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코 밝혀 내지 못했지만 내가 만일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가! 그분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내가 병으로 인해 배워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나를 의아스럽게 여기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마이클 렌커는 유타 이글 마운틴 스테이크 시터 패스 제6와드의 회원이다.

금식과 기도로

루스 로드리게스 소텔로

나의 아들 엘라드 마누엘이 1990년에 침례를 받았을 당시, 그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페루의 경제적인 상황은 무척 어려웠다. 일자리는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다. 나의 아들이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저는 십일조를 낼 겁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 일요일에 쉬는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의 아들이 종교가 다른 젊은 여성과 결혼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언젠가 그녀가 말일성도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놀라운 일은 내가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도 함께 교회에 가겠어요.”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1997년에 침례를 받았다. 1998년 9월 10일에 아들은 며느리인 카티아와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으며, 1998년 10월 12일에는 예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아들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드디어 나의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한 달만 더 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사람들이 어디서든 실직을 하던 때였으므로 우리는 걱정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요일에 쉬는 직장을 찾으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일하는 식품점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은 모든 상품을 구매하여 다른 상점으로 분배하는 곳이었다.

창고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요일에 쉬었다. 나의 아들이 그곳으로 전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인 동시에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나의 아들은 감독단 보좌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

충실한 마음과 금식과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

루스 로드리게스 소텔로는 페루 아레키파 자마콜라 스테이크 자마콜라 와드의 회원이다.

리네트의 간증

레아 폴 라이트

캘리포니아 주의 샌베르나르디노 산을 오르는데 날씨가 너무나 좋았다. 우리의 일곱 자녀들은

등산용 막대기를 하나씩 찾아 들었고 남편 마크가 앞장을 섰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정교하게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를 바라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새들은 마치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우리는 간증 모임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냈다. 우리는 모두 동그렇게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았다. 남편이 먼저 나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복음의 진실함과 성전 결혼의 축복에 대해 간증을 했다.

내가 간증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은 각자 나이 순으로 부모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다.

드디어 네 살짜리 리네트가 간증할 차례가 되었다. 리네트는 엄지 손가락을 입에 물고 근 한 시간이나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다. “리네트, 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지?” 하고 내가 물었다.

리네트는 맑고 푸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자신있게 대답했다. “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놀랐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구세주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솔직함과 순수함을 지닌 어린 리네트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해 주었다.

나중에 나는 구세주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니파이삼서 17:23) 그 날 우리의 어린 딸은 우리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

레아 폴 라이트는 유타 하이람 스테이크 하이람 11와드 회원이다.

고통을 통해 동생과 더 친밀했던 어머니

아담 시 올슨

나의 모친은 몇 년 동안 건강상의 어려움을 용기 있게 견디어 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반복되는 편두통이다. 어머니의 고통이 아름다운 신권 축복을 하게 하고 가족의 단합을 향상시킨 반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병 고침을 위한 많은 신앙과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요구했다.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은 파나마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였다. 당시 열 일곱 살 된 동생은 그를 병약하게 만든 심한 편두통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늦게 나는 동생이 고통 때문에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어두운 그의 방으로 가다가 나는 그 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멈추어 섰다.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두려움과 고통에 차 달래고 계셨다. 나는 문밖에 서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난 죽나요?”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물러나왔다. 그의 질문은 나의 마음을 찢는 듯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그의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는 어머니가 그와 함께 울면서 곧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이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더 큰 의미를 주었던 것은 내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속죄에 관한 공과를 준비할 때였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기억했다. 나의 어머니는 동생이 겪는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를 더 잘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느낀 고통을 통해 동생과 더 친밀했던 어머니는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항상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만물보다 낮아지셨던 것이다.(교리와 성약 122:8 참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앨마서 7:11) 지셨다. 완전한 속죄를 통해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시련을 알고 계신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 7:12)

어머니를

지켜본 일과 속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값진 원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 날 밤 어머니가 보여 준 자비의 모범은 구세주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감사를 느끼게 해 주었다. 자신의 시련 가운데서 어머니가 동생을 위로했듯이 나는 “[나의] 연약함”에 따라 나를 위로하는 그분의 영이 끊임없이 임재하는 것을 느낀다. ■

아담 시 올슨은 유타 바운티폴 이스트 스테이크 바운티폴 제45와드의 회원이다.

나는 문밖에서 서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난 죽나요?” 하고 그가 물었다.



질문의 응답

어떻게 영감과 내 자신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다음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기도를 마친 다음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영감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생각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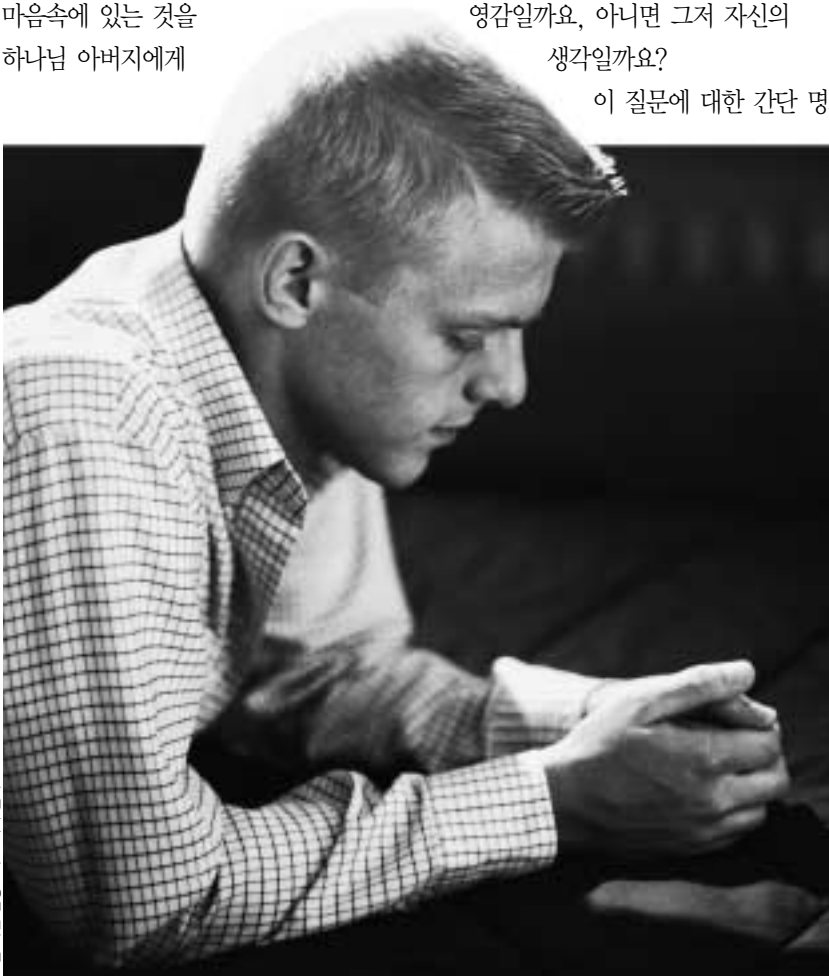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간단 명료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영적인 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필멸의 생은 시험의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연마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다행히, 주님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닦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1쪽)

해롤드 비 리 대관장(1899~1973)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 우리



모델 사진 촬영: 제드 에이 콜라크

모두는 우리에게 오는 생각에 귀 기울이려 노력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또 이러한 속삭임을 듣는 귀를 개발한다면, 우리 각자는 계시의 영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000], 51쪽)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정신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서 그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권고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견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11:12)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를 인식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라고 속삭임을 받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여러분이 받는 느낌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은 성신과 친숙하게 되며 그의 음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신의 동반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일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분은 영을 분명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좀더 순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속삭임을 듣고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우리 마음은 영감을 받을 때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응답을 받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스리나콘 수파코트, 15세,
태국 콘 칸엔 지방부
코라트 지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최근 우리에게 느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신앙을 시험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야호나, 2002년 8월호, 12~19쪽 참조)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느낌이 성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이더서 12:6 참조) 나는 내가 받는 느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혼란이나 의심이 아니라, 확신과 화평을 느낄 때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크리스틴 카 자매, 21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선교부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나타내심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위안과 평온함

“영”의 가르침은 흔히 느낌으로 옵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교리와 성약 9:7~8 참조] 느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나는 한 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뜨겁다’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야호나, 1999년 5월호, 22쪽

공부하며 인내와 겸손을 지니고 매일 청결한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켈 아케미 이노쿠티, 15세,
브라질 쿠리티바
타쿠마 스테이크
바이로 알토 와드

영감일 경우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를 것이며 그것이 옳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영이 주는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슨 스타, 17세,
에리조나 길버트
발비스타 스테이크
길버트 12와드

성신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청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단순하고 평화롭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시아 파멜라 프리아스, 20세,
볼리비아 라파스 미라플로레스 스테이크
시온 와드

나는 해야 할 일과 말을 해야 할 사람들 등에 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습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따를 때 우리는 영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언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배울 수 없습니다.



니켈 라에 크리스텐슨 자매,
22세, 아이다호 주
보이시 선교부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에 따라 생활할 때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리아 칼라이스, 14세,
실케보르그 지부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37쪽) 영감은 음성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우봉 아와이크, 23세,
나이지리아 라고스 스테이크
이케야 와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훌륭한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게샤 파레데스 마리두에나,
20세, 뉴욕 퀸스 웨스트
스테이크 레고 파크
제2(스패니쉬) 지부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영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온 몸을 채워 주는 느낌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전혀 의심을 갖지 않을 때 그 느낌이 바로 영입니다. 의심은 확실하지 않은 생각이며, 영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확신입니다.



콜비 파크, 17세, 솔트레이크
모뉴먼트 파크 스테이크
모뉴먼트 파크 14와드

질의 응답은 청소년 특집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내 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3년 5월 15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5/03,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 것처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해

제8대 대관장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1870년 4월 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했다.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브리감 영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갈 지] 메이저

박사가 하루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행하는 일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소년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지 일주일인가 이 주일 후에 어린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은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필멸의 생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생각을 모아 놓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제언이 평생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될 뻔한 것을 여러 번 피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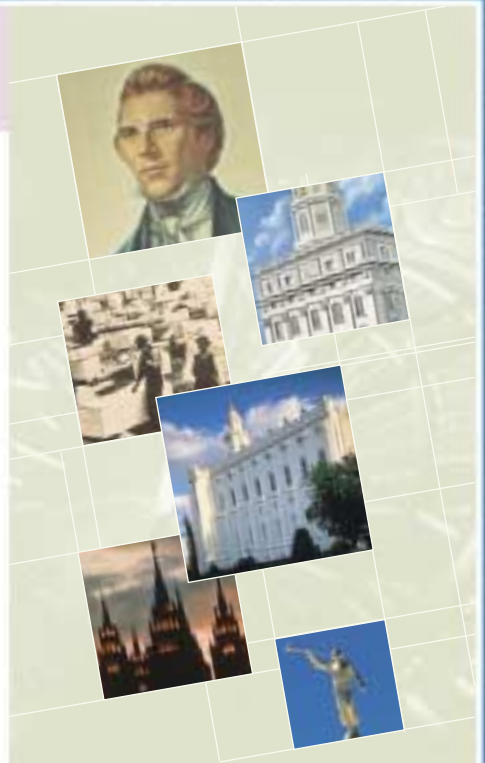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내 생이 끝나면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Church News*, 1946년 2월 16일, 1)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부름을 성취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의 동반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의 안내를 받을 때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그 속삭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4월 6일에 있었던 일들

4월 6일에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예이다.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했다.

1841년: 나부 성전의 정초식이 거행되었다.

1853년: 솔트레이크 성전 모퉁잇돌이 놓였다.

1877년: 대관장단 제2보좌인 다니엘 에이치 웰즈 부대관장이 유타 주에서 최초로 완공된 세인트 조지 성전을 헌납했다.

1893년: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다.

2000년: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이 뉴욕 팔마이라 성전을 헌납했다. ■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사진: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사진: 그림: 데이 킬번, 1830년 4월 6일, 교회 조직의 일부: 사진 촬영: 제임스 포터, 일리노이 나부 성전: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 사진 촬영: 켄 로우즈,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뉴욕 팔마이라 성전 폭대기에 있는 모로나이 동상: 모델 사진 촬영: 켈리 라슨, 기도하는 사람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무도회를 통해 교회로 돌아옴”, 34쪽: 네드 비 루에서 장로는 재능을 나누도록 부탁한 단순한 권유가 어떻게 인생을—그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말해 준다. 봉사하고, 재능을 나누거나 혹은 참여하라는 단순한 권유와 같은 일들에 의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댄디”, 38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호기심과 방랑벽 때문에 때아닌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한 말 댄디를 충동적인 청소년에 비유하고 있다.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 “커 가는 간증,” 친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내 영혼의 가장 훌륭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을 나눈다. 간증이 무엇인지 질문한 다음 우리가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가족이나 반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사진 촬영: 에두아르도 빌라그메사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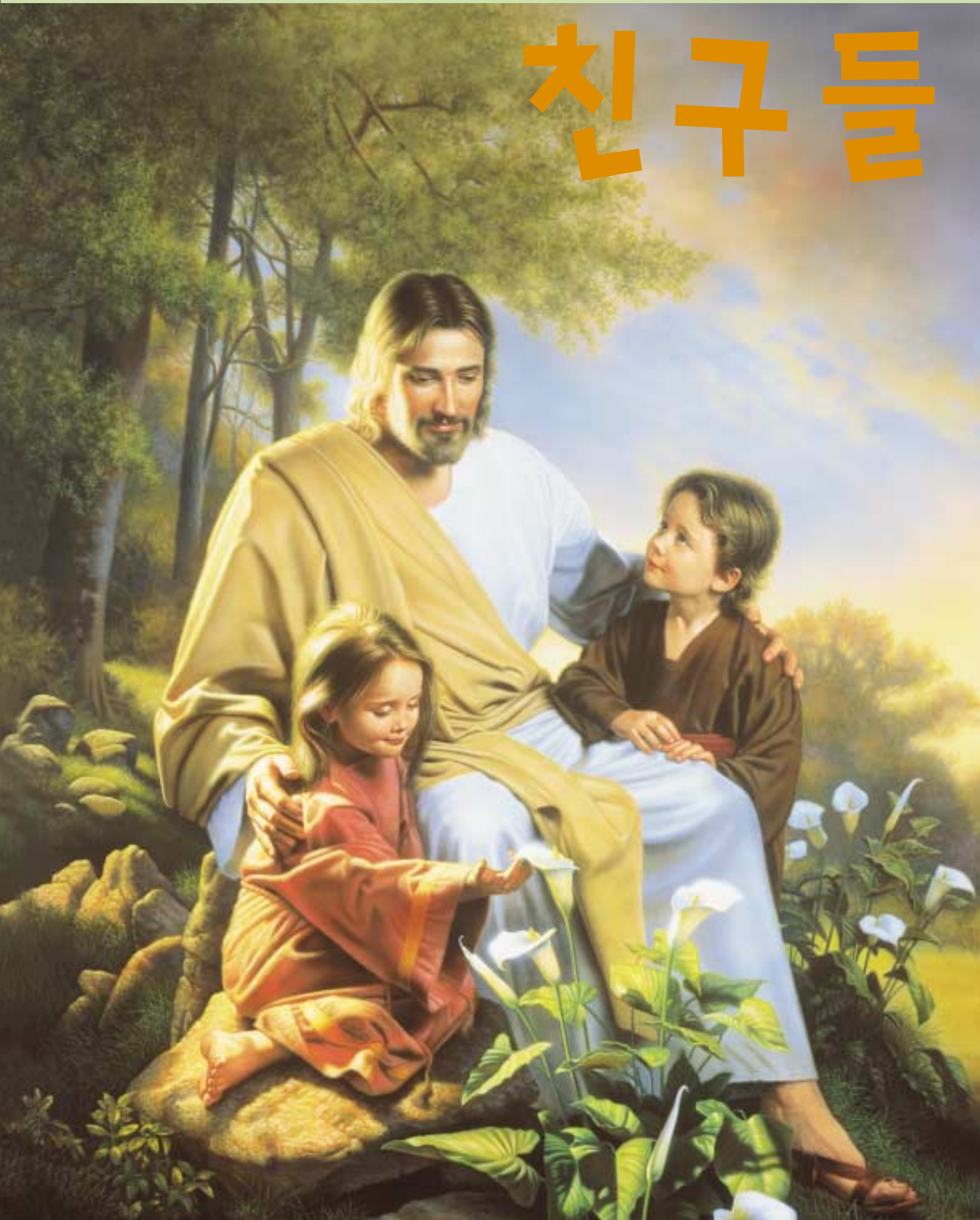
- 가르침48
- 가정 복음 교육7
- 가정의 밤48
- 가족 관계18, 친2
- 간증40, 친2, 친6
- 개종30, 37, 40
- 관용8
- 교회사47
- 극기38
- 금식40
- 기도40, 44
- 방문 교육 메시지25
- 범세계적인 교회30
- 부활2, 18, 22, 26
- 부활절2, 친8
- 사랑친2
- 성신44
- 성전과 성전 사업25, 30, 친4
- 속죄26, 37, 친16
- 신앙30, 40
- 신약전서18, 26, 친10, 친13
- 십자가에 못박히심26, 친10, 친13
- 안식일40
- 어린이40
- 역경40
- 연민40
- 영감44
- 예루살렘8
- 예수 그리스도2, 18, 22, 24, 26, 37, 40, 친6, 친8, 친10, 친13, 친16
- 우선 순위33
- 우정 증진34
- 위안2, 18, 친2
- 재능34
- 죽음2, 18
- 준비1, 25
- 지도자47, 48
- 청소년38
- 초등학교친6
- 활동 촉진34
- 회개24, 37

실력 테스트

여러분은 부활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음 말은 맞는가, 틀리는가?

1. 부활절은 구세주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2. 말일성도는 부활절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재의 수요일(또는 성회일)과 사순절을 지킨다.
3. 모든 국가에서는 같은 날 부활절을 지킨다.

친구들



커 가는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이 그의 가장 큰
힘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심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기이한 힘과 축복의 한 근원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시라는 간증과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신앙을 제 온 생애 동안 가졌던 것에 저는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수백 번도 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가진 가장 훌륭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빛입니다. 제 인생의 초석입니다.

제 간증의 첫번째 초석은 아주 오래 전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적에 매우 무서운 꿈을 꾸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꿈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날 밤에 저는 꿈을 꾸다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품에 안아 달래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그 날 저녁에 먹고 남은 라이스 푸딩 케익을 그릇에 담아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푸딩을 떠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집에 있을 동안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에 모두 위로를 받고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며 말입니다.

그 소중한 첫번째 경험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라는, 다른 강한 확신들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중 많은 확신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머니 칼과 같은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보기로 되어 있던 소들을 잃었을 때에도 항상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저는 두 번 이상 기도 드려야 했지만 저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확신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안 된다는 것이었을 때조차도 주님의 크신 지혜 안에서 볼 때 그 답이 저를 위한 최선의 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벽돌이 초석 위에 하나씩 쌓여 가듯이 저의 신앙은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해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아는 확고한 지식으로 자라났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영향력과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파스한 영적 외투와 같았습니다. 경이롭게도, 계명을 지키고 지도자들을 지지하려고 마음을 기울여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똑같은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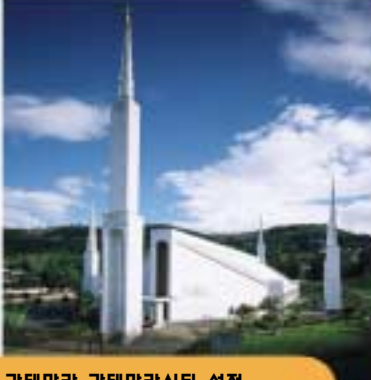


200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림: 메릴리 비 캄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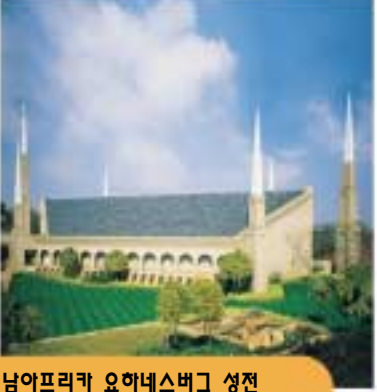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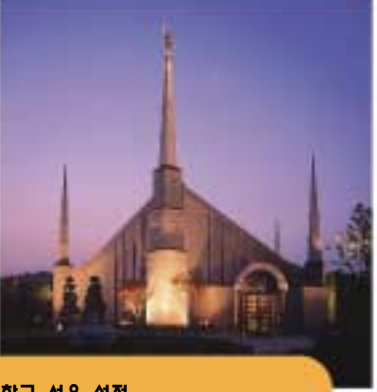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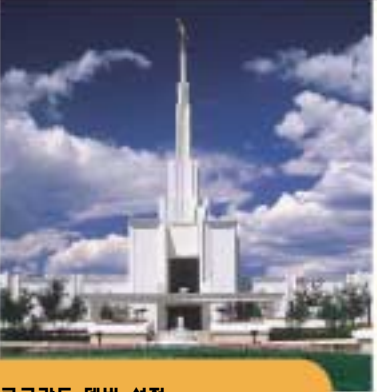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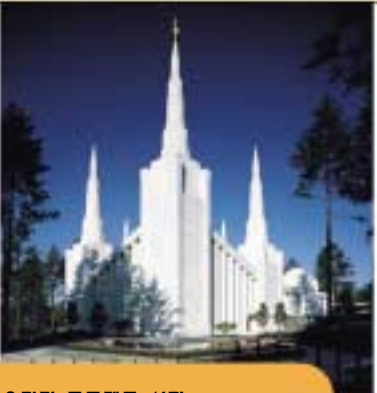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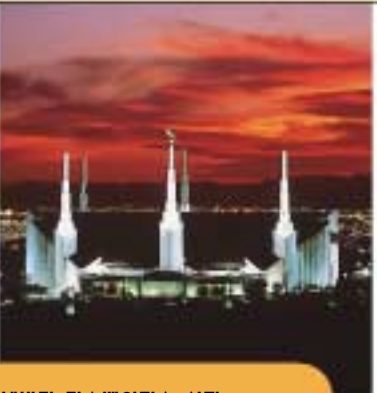
성전 카드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 | | |
|---|--|--|
|  <p>타히티 파페에테 성전 1983년 10월 2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p> |  <p>아이다호 보이서 성전 1984년 5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p> |  <p>호주 시드니 성전 1984년 9월 2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p> |
|  <p>필리핀 마닐라 성전 1984년 9월 2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p> |  <p>텍사스 덜러스 성전 1984년 10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p> |  <p>타이완 타이베이 성전 1984년 11월 1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p> |
|  <p>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1984년 12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  <p>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1985년 6월 2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진 디 스텔러</p> |  <p>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1985년 7월 2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케니 테더</p> |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 | | |
|---|---|---|
|  <p>일리노이 시카고 성전</p> <p>1985년 8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  <p>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p> <p>1985년 8월 2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트레버 시몬</p> |  <p>한국 서울 성전</p> <p>1985년 12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먼</p> |
|  <p>페루 리마 성전</p> <p>1986년 1월 1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  <p>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p> <p>1986년 1월 17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p> |  <p>콜로라도 덴버 성전</p> <p>1986년 10월 24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p> |
|  <p>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p> <p>1987년 8월 28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헌납함</p> |  <p>오리건 포틀랜드 성전</p> <p>1989년 8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엘든 엘리드</p> |  <p>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성전</p> <p>1989년 12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p> |

주는 그리스도시요

비키 에프 마주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그분이 2000 여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훌륭한
교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교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딱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5~16)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 받고 죽으시며
부활하시도록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시현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2~23)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신의 증거하심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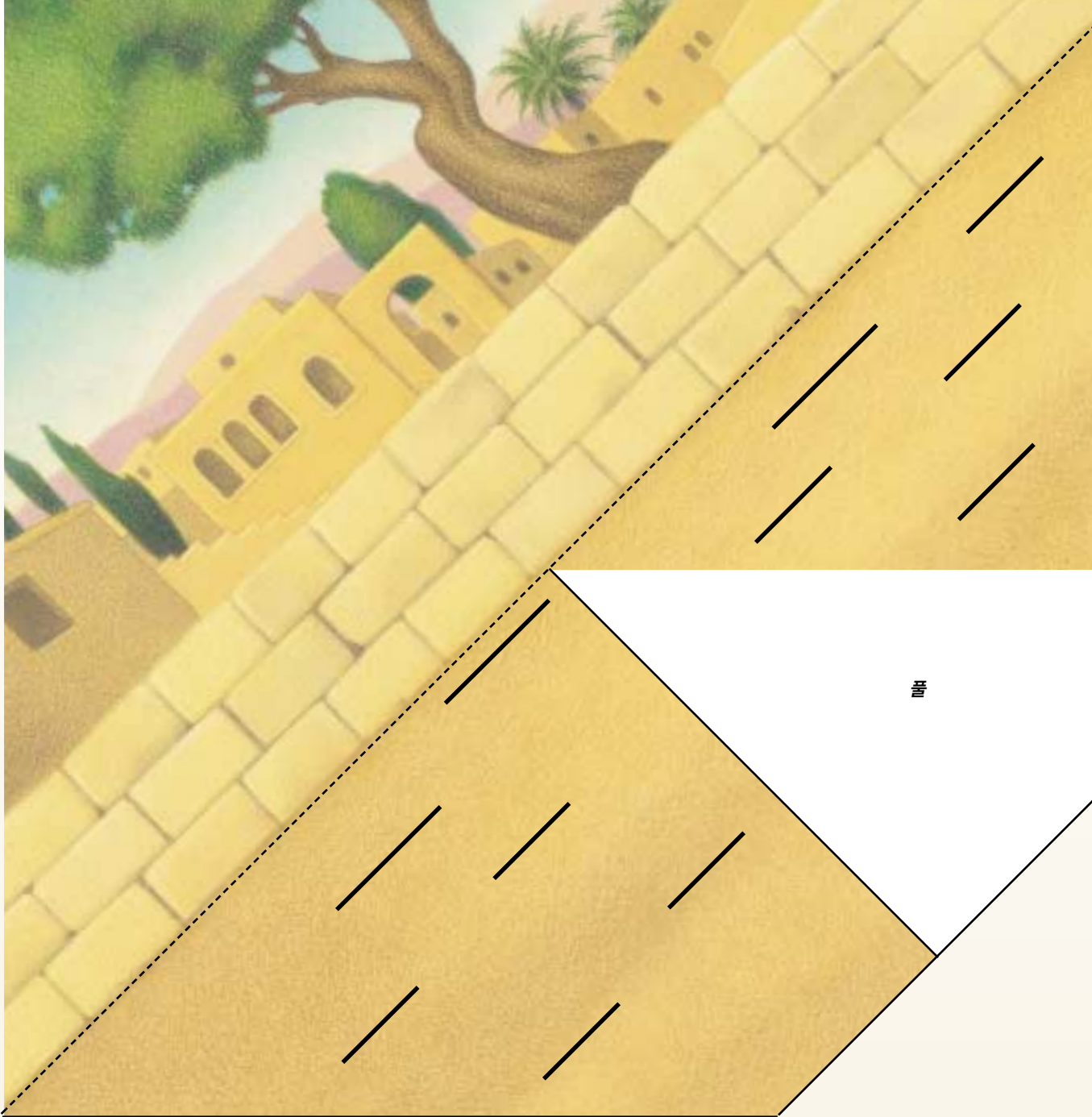
어린이와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입체 그림

1. 마분지에 7쪽을 올려 놓는다.
2. 그림, 돌, 입체 배경 그림 부분을 오려낸다. 그런 후
굵은선을 따라 자른다.
3. 점선을 따라 접고, 입체 배경 그림 바로 밑의 빈 공간에
폴칠을 해서 그림 아래에 붙인다.(그림 참조)
4. 짧고 굵은 선을 칼로 자른다. 인물 그림의 발아래 접는
부분을 자른 틈 사이로 끼어 넣고 그것들이 설 수 있도록
접는다.
5. 돌 위에 적혀 있는 성구를 읽고 입체 배경 그림에 그
돌들을 붙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다음의 성구들을 각기 다른 종이에 적는다. 마태복음 3:13~17;
사도행전 2:1, 38:41; 모사이야서 18:14~17; 요셉스미서 1:68~72;
모세서 6:64~66. 초등학교를 몇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성구를 읽고
토론자들을 구성하게 한다. 나머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성구에 대한 토론
의제 즉, 누가 침례를 받았는가?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침례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그 침례들은 여러분
자신의 침례와 어떻게 비슷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침례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침례의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2. “부활절 호산나”를 가르치기 몇 주 전에, 초등학교의 나이 많은 어린이나
성인 지도자가 가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후렴
부분을 먼저 가르친다. 요한복음 12장 12~18절을 읽고 구세주께서 그
마을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대륙의 백성들도 구세주께서 오셨을 때 기뻐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니파이삼서 11장 15~17절을 큰소리로 읽게 한다. 어린이들이
“부활절 호산나”의 후렴 부분을 부르면서 “호산나”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귀를 만지게 한다.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의 나이 많은 어린이 또는 성인
지도자가 부르는 가사를 듣게 한다.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가 후렴 부분에서
함께 부르게 한다. 어린이들이 가사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독창자에게 첫줄을
부르도록 부탁한다. 그런 후 어린이들이 그 줄을 부르게 한다. 두 번째 줄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어린이들이 다시 두 번째 줄을 부르게 한 다음 처음
두 줄을 부르게 한다. 가사를 다 배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11:25

고린도전서
15:20

모사야아서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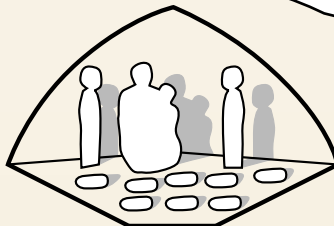
니파이삼서
11:8~10

요셉 스미스서
2:11, 15~17

교리와 성약
101:32

교리와 성약
110:1~4

플



그림



부활절 호산나



사려깊게 ♩ = 60-66

Dm Gm Dm B^b

1. 그 옛 날 예 언 드 - 디 어 이 루 어 졌
 2. 주 예 수 니 파 이 인 에 게 나 타 나 시

A Dm Gm Dm B^b

네 주 예 수 흰 옷 입 고 하 늘 에 서 내 려
 니 저 약 속 땅 의 의 의 백 성 예 수 님 께

Dm Gm A7 Dm

와 한 백 성 에 게 영 화 록 게
서 죽 었 다 다 시 부 활 하 신

B \flat A Dm

나 타 나 실 때 주 저 약 속 땅 의
입 금 되 신 주 다 알 아 보 고

B \flat Dm B \flat A Chorus Dm

백 성 영 접 하 고 외 치 길 호 산 - 나
기 빠 하 며 찬 양 드 리 길

Chorus
L.H.
slower

Gm Dm (C) Dm

찬 양 하 라 늘 으 신 주 이 름 호 산 - 나

Gm Dm A D

찬 양 하 라 주 이 름 호 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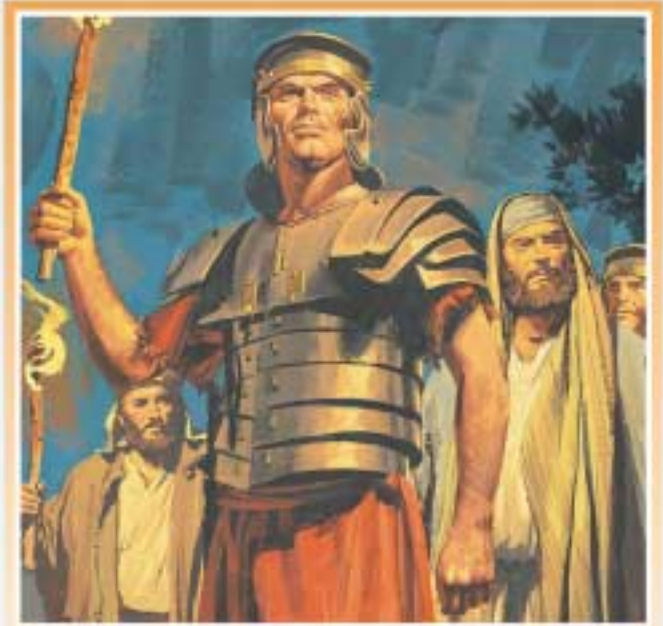
작사 및 작곡: Vanja Y. Watkins, 1938년생 © 1982 IRI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그림: 필리스 루치, 배경 사진 촬영: 매튜 레이어

니파이삼서 1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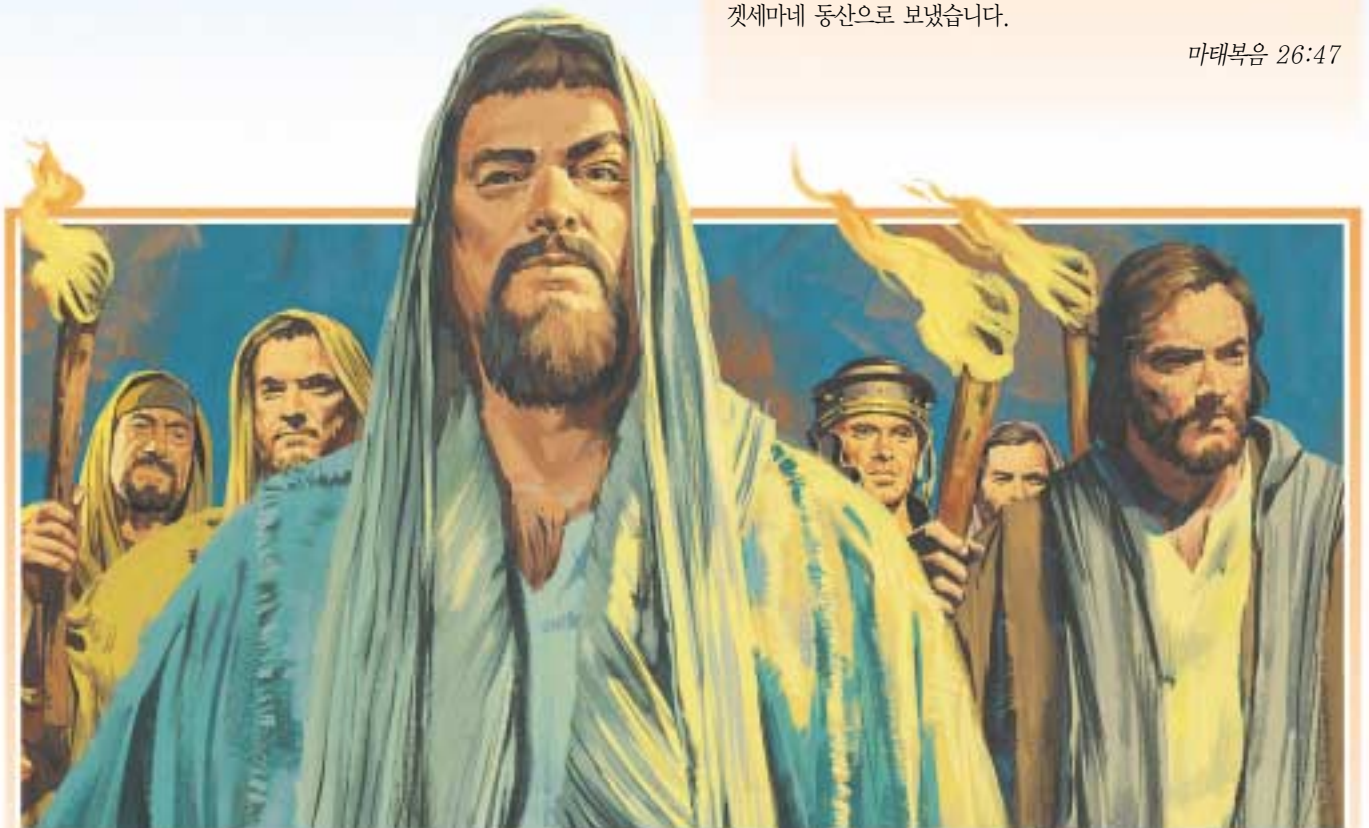
예수님의 재판



마태복음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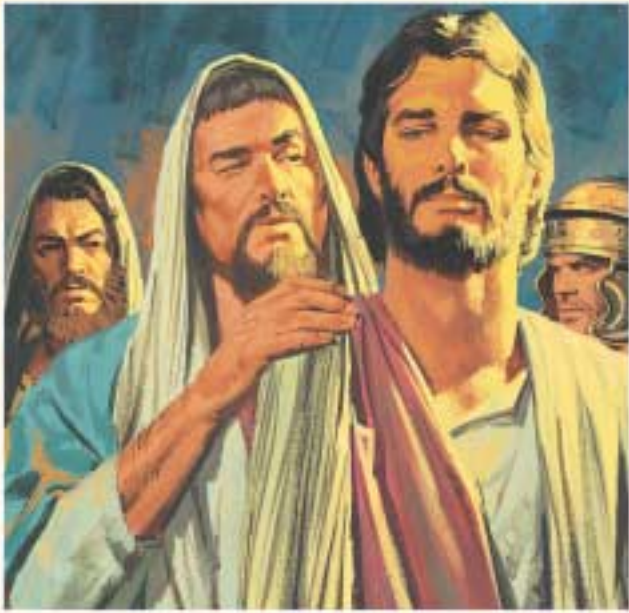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칼과 몽치를 가진 사악한 무리를 겿세마네 동산으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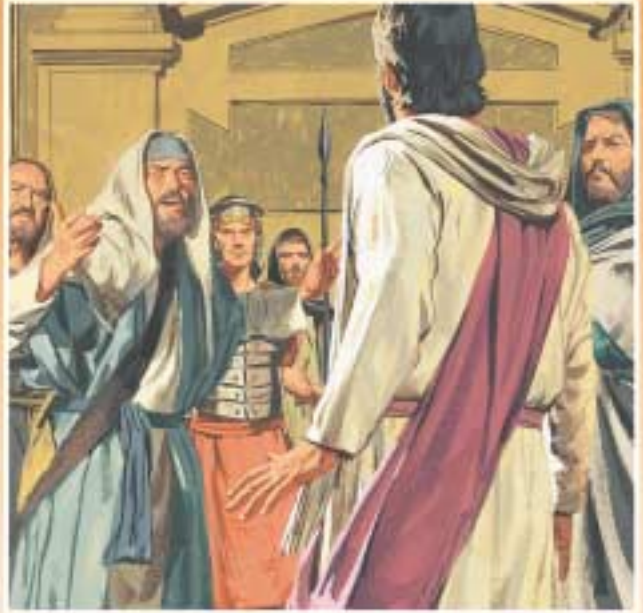
사도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구세주를 알려 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14~16, 47



유다는 그들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이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6:48~50, 57; 누가복음 22:63~65



유대인 지도자들은 재판관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2:6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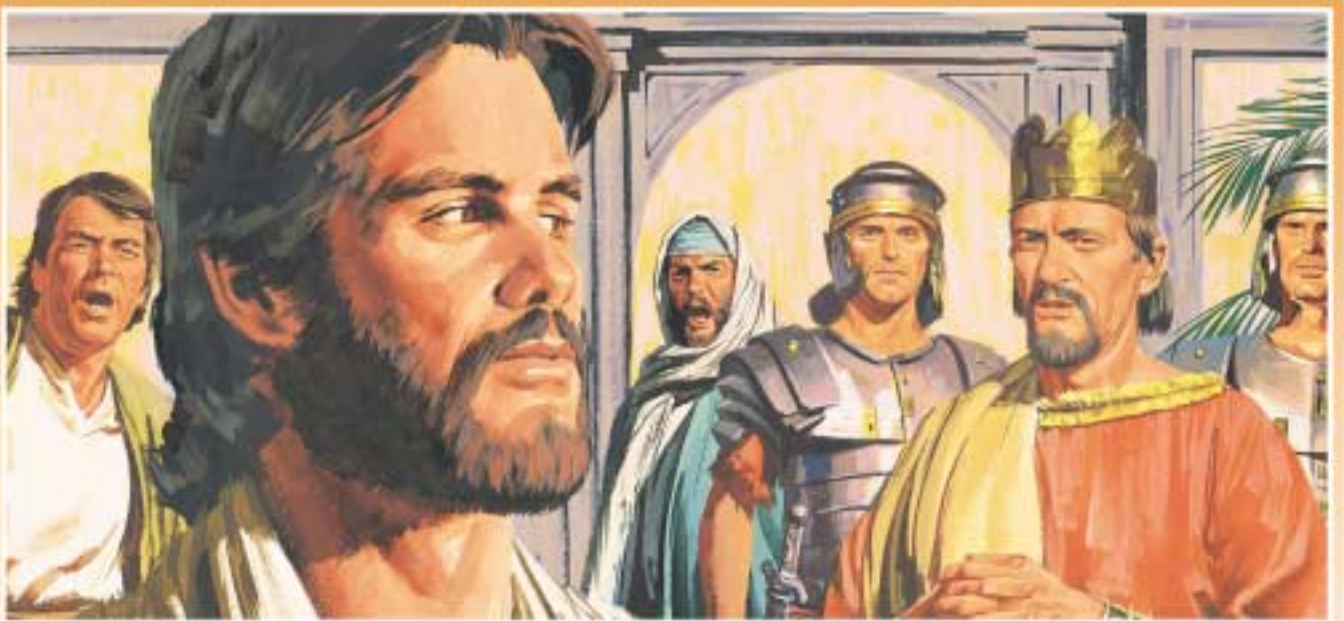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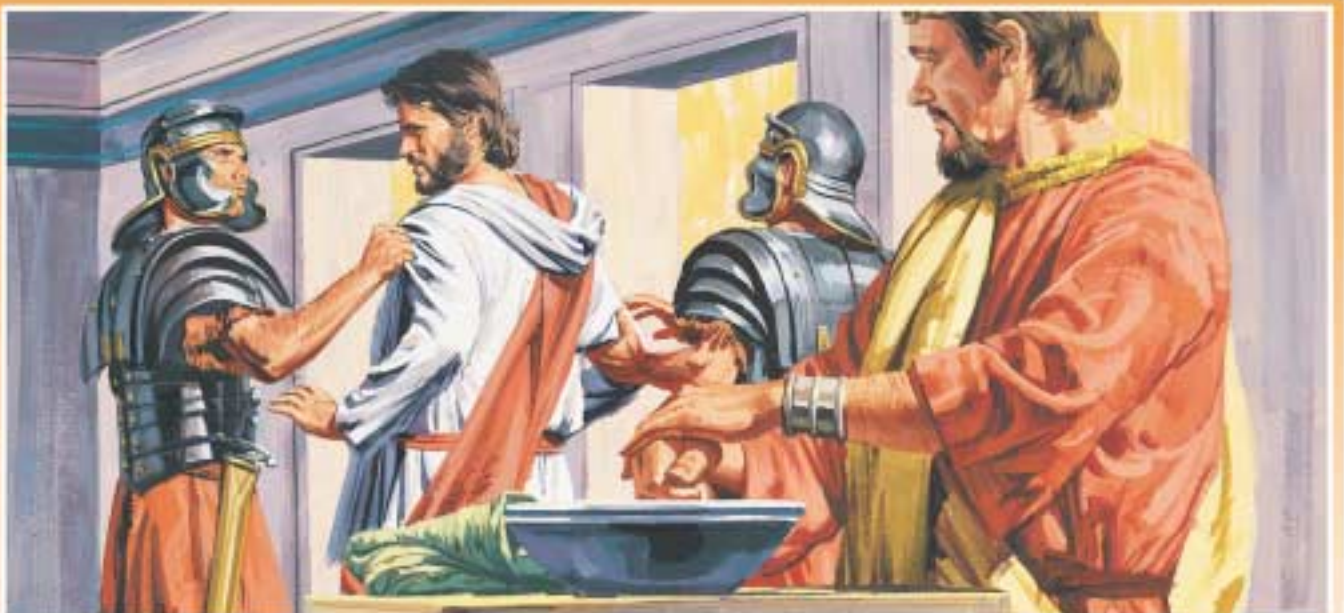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루살렘의 한 축제일이었고, 축제 기간 중에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인자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23:14~21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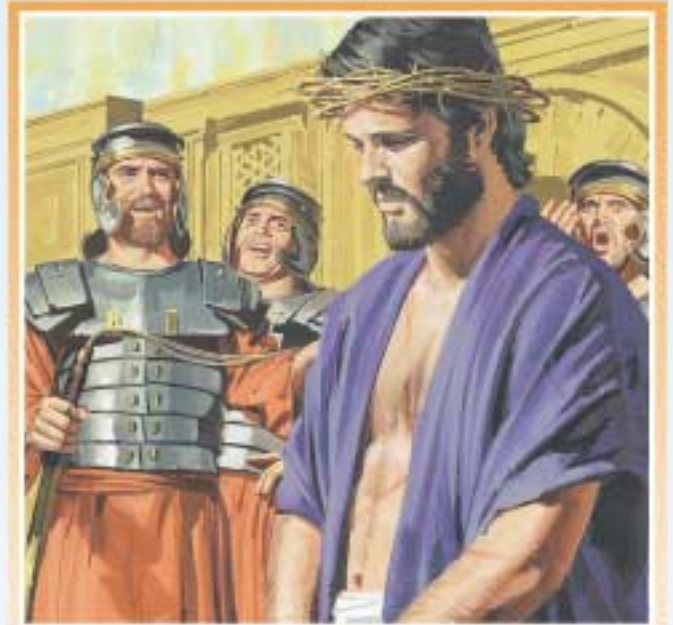
누가복음 23:22~23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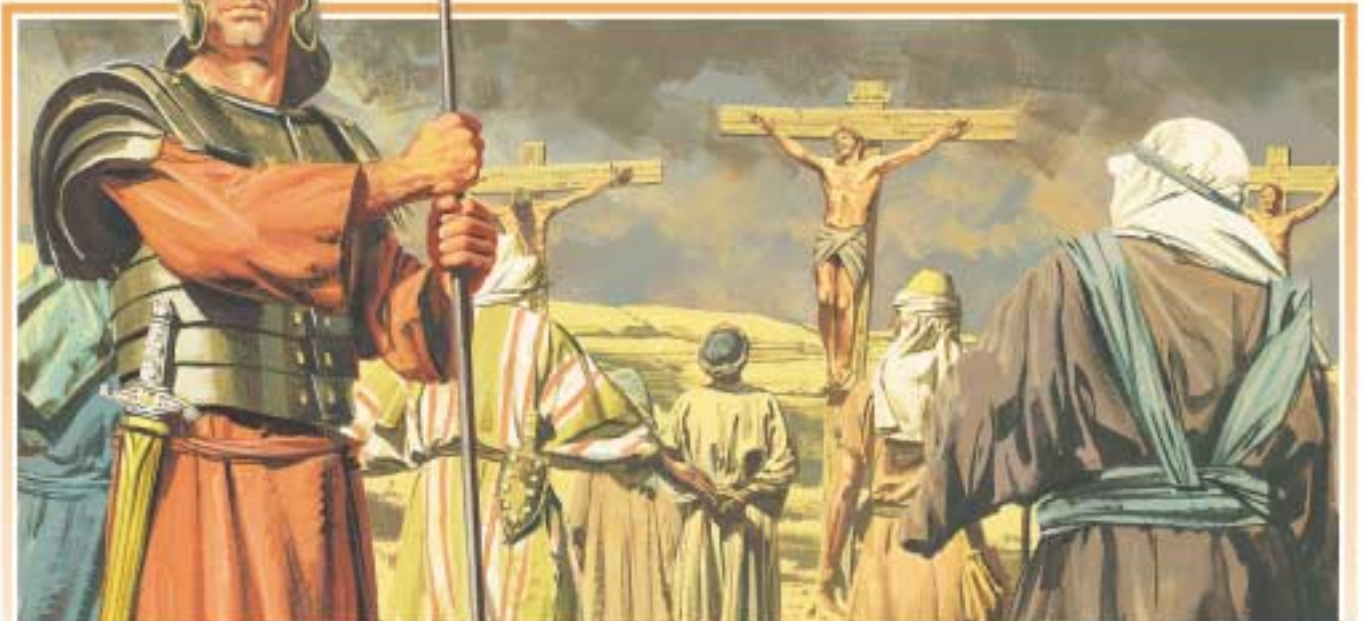
마태복음 27:24~26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5:15~19



병사들이 예수님을 못박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의 언덕으로 끌고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십자가에 누이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날 다른 두 명의 남자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 두 남자는 도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27, 33; 요한복음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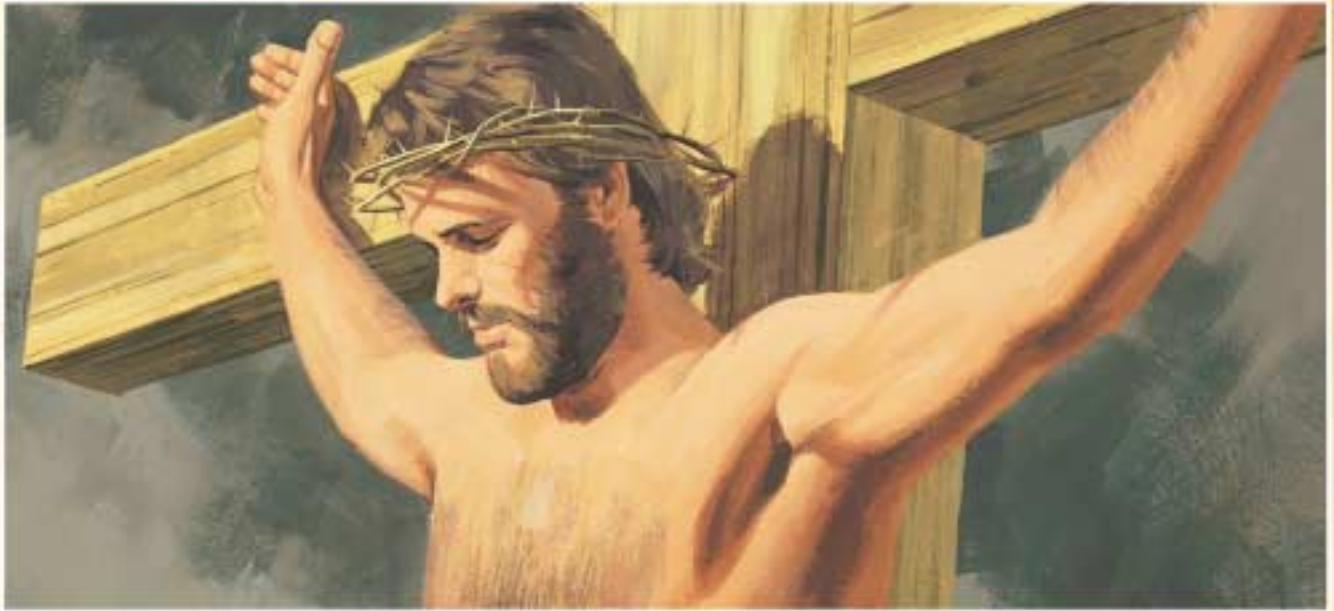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박은 병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3:34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9:25~27



제자들은 구세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7:46, 50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진동하며 큰 바위들이 부서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45, 51, 54



제자 중 하나가 구세주의 몸을 십자가에서 떼어 낸 후 천으로 싸서 사람들을 묻는 무덤에 놓았습니다.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57~60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이 대학 미식 축구 선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그분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 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 구속주이시며 인간 영혼의 심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종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평의회의 총관리 역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들의 동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교리와 성약 4:2)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사 불멸과 영생은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사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사랑의 행위입니다. 속죄는 불사 불멸을 모든 이에게 주며, 불사 불멸도[결코 끝이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한] 무한하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삶과 같은 영생의 기회를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속죄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아담의 타락의 결과, 즉 필멸의 종말인 육적인 사망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속해 줍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7:3)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과 같은 삶, 즉 영생을 갖게 됩니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권, [1966~1973], 1:762)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

199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켈세마네 동굴에서